

## II. 백제의 변천

1. 한성시대 후기의 정치적 변화
2. 웅진천도와 중흥
3. 사비천도와 지배체제의 재편
4. 지배세력의 분열과 왕권의 약화

## II. 백제의 변천

### 1. 한성시대 후기의 정치적 변화

#### 1) 한강유역의 상실

##### (1) 왕위계승 분쟁과 왕권의 쇠퇴

###### 가. 4세기 후반의 왕위계승 분쟁

방계인 古爾王系를 물리치고 肖古王系의 왕위계승권을 확립한 근초고왕(346~375) 이후 근구수왕(375~384), 침류왕대(384~385)까지는 영역의 확대, 《書記》의 편찬 및 불교의 수용 등 일련의 왕권강화책에 힘입어 고대 귀족 국가의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에 이르는 약 1세기 동안의 한성시대 후기는 백제의 역사상 일대 격동의 시기였다.<sup>1)</sup>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침공세와 함께 대내적으로 잇따른 왕위계승 분쟁과 이에 따른 眞氏·解氏·木氏 등의 유력한 정치세력의 발호로 인하여 왕권은 극도로 쇠미해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권력구조는 왕족과 왕비족간의 연합체제를 이루는 가운데 왕권과 유력한 귀족세력 사이의 타협물인 上佐平制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근구수왕 이후 백제는 왕의 단명, 이에 따른 비정상적인 왕위계승, 정변에 의한 왕의 피살 등 왕위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내분을 겪게 되면서 왕권은 극도로 동요하였다. 이 시기에 일어난 왕위계승 분쟁 중 첫번째로 들

1) 한성시대 후기의 정치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129~149쪽.

——, 〈4~5世紀 百濟의 政治運營〉(《韓國古代史論叢》 6, 1994).

梁起錫, 《百濟 專制王權 成立過程 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73~89·119~128쪽.

李道學, 〈漢城後期の 百濟王權과 支配體制의 整備〉(《百濟論叢》 2,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90), 287~302쪽.

수 있는 것은 진사왕의 즉위를 둘러싼 왕위계승 분쟁이다. 침류왕이 재위 2년만에 죽자 그의 동생인 진사가 태자 阿莘이 어리다는 구실로 왕위를 잇고 있다. 진사왕(385~392)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앞선 고이왕과 비류왕의 즉위 예에서도 나타나듯이<sup>2)</sup> 태자가 연소하여 정사를 돌볼 수 없는 비상 시기의 경우 왕위계승이 부자상속이 아닌 형제상속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日本書紀》에서는 진사왕이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서<sup>3)</sup> 진사왕의 즉위과정에 어떤 정변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의 인물됨을 평하여 “강용하고 총명하며 지략이 많았다”고 한 점으로 보아<sup>4)</sup> 진사는 태자 아莘이 연소함을 틈타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sup>5)</sup> 짐작된다.

이와 같이 변칙적으로 즉위하였던 진사왕은 빈번한 토목공사 등을 실시하여 왕권을 신장하고자 하였다. 진사왕 2년에는 고구려와 이에 부응된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북쪽 국경지대인 靑木嶺에서 서해안에 이르는 곳까지 15세 이상의 민력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축성사업을 벌였으며,<sup>6)</sup> 동왕 7년에는 궁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그 부속시설들을 호화스럽게 꾸미는 등<sup>7)</sup> 토목공사를 일으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려 하였다. 또한 狗原(豐壤<sup>8)</sup>), 강화도, 橫岳(서울 북한산<sup>9)</sup>) 등 서울 근교지역에서 사냥을 빈번히 실시하였는데, 이는 국왕으로서의 군사통수권을 확인하여<sup>10)</sup> 대고구려전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무모한 토목공사의 실시와 특히 진사왕 8년(392) 고구려군의 대규모 공세로 인해 그 북방의 요새인 關彌城을 상실하는 등 대고구려전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는 백제의 지배세력간에 동요를 일으켜 진사왕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와해시키는 결과가 되었고 그 자신도 재위 8년만에 죽고 말았다.

2) 《三國史記》권 24, 百濟本紀 2, 고이왕 즉위년 및 비류왕 즉위년.

3) 《日本書紀》권 9, 神功皇后 65년 을유.

4)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진사왕 즉위년.

5) 盧重國은 진사에 의한 왕위찬탈 배경을 침류왕의 불교공인에 따른 지배세력 사이의 갈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앞의 책, 132~133쪽).

6)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진사왕 2년 춘.

7)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진사왕 7년 정월.

8) 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朝鮮學報》54, 1970), 46쪽.

9) 金正浩, 《大東地誌》권 1, 漢城府, 山水·典故.

金英河, 《三國時代 王의 統治形態 研究》(高麗大 博士學位論文, 1988), 38~39쪽.

10) 金英河, 위의 책, 58~60쪽.

진사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三國史記》에서는 구원에서 사냥을 하다가 행궁에서 죽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sup>11)</sup> 《일본서기》에서는 진사왕이 살해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sup>12)</sup> 아마 그는 어떤 모종의 정변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아신왕(392~405)의 즉위도 일련의 내분을 거치고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침류왕 사후 진사왕의 변칙적 즉위, 고구려의 적극적인 남침공세의 강화, 진사왕의 피살로 이어지는 당시 백제의 대내외적인 정치정세의 불안은 왕족은 물론 지배세력간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시켰을 것이다. 지배세력들간의 구체적인 동태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진사왕대에 眞嘉謨가 병관좌평이었고, 아신왕대에 左將 眞武는 國舅로서 각기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 시기에 진씨의 정치적 영향력이 보다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왕위계승 분쟁에도 크게 관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sup>13)</sup> 이러한 왕비족 진씨세력의 역할 증대는 점차 왕권이 쇠미해지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다.

진사왕을 제거하고 왕위에 오른 아신왕은 먼저 왕권의 정통성을 과시하고 지배세력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시조묘인 동명묘에 배알함과 동시에 범부여족사회에서 거행되던 전통적인 의례인 祭天祀地를 南壇에서 거행하였다.<sup>14)</sup> 이어 즉위 3년에 원자 진지를 태자로 조기 책봉하여 왕위계승상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고, 서제인 洪을 수석좌평인 內臣佐平에 임명하여 왕실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구인 진무를 좌장에 임명하여 병마권을 위임함으로써 내정은 왕족, 병권은 왕비족인 진씨세력에게 각각 역할을 분담시켜 국정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아신왕의 왕권은 근초고왕대 이래로 구축된 왕족-왕비족 연합체제를 중심으로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에서 유지되었다.

그런데 백제 진사왕대부터는 대외적으로 고구려 광개토왕의 적극적인 남하공세에 밀려 한강유역에서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신왕 5년(396)에는 <광

11)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진사왕 8년 10월·11월.

12) 《日本書紀》권 10, 應神天皇 3년 임진.

13) 아신왕 2년에 眞武가 左將에 임명된 사례에 주목하여 진무가 이 정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盧重國, 앞의 책, 150쪽).

14)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2년 정월.

개토대왕릉 비문>에서 보듯이 한강유역에 있는 58성 700촌을 고구려군에게 공취당하였다. 이에 아신왕은 굴복하고 그 복속의 표시로 왕제와 대신 10명을 인질로 고구려에 보내고, 남녀 1,000명과 細布 1,000필을 바치는 한편, 한때나마 고구려왕의 「奴客」으로서 고구려세력권에 예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15)</sup> 이와 같은 굴욕을 씻기 위하여 아신왕 6년에는 왜와 비밀리에 통교하고 태자 전지를 왜에 청병사의 성격을 가진 인질로 파견하여 백제를 후원토록 하였다. 태자 전지가 인질로 왜에 파견된 이후 아신왕은 한강 남쪽에서 열병을 실시하여 왕으로서의 군사통수권을 확인하였고, 이듬해에는 진무를 좌장에서 병관좌평으로, 沙豆를 좌장으로 승진시켰다.<sup>16)</sup> 이 인사조치는 지금까지 병마권을 장악하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연패하였던 진씨세력에 대한 책임 추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雙峴城을 축조하거나 西臺에서 활쏘기를 하는 등<sup>17)</sup> 왕이 일선에 나서서 고구려와의 전쟁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였으나 기대하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재위 14년만에 죽었다.

이와 같이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잇따라 패배함으로써 이후 백제는 대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거듭되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상자가 나오고 농민들의 생활고는 더욱 가중되었다. 아신왕 4년 백제는 고구려와 패수에서 전투를 할 때 8,000명의 사상자를 내었고, 동왕 8년에는 군역을 기피하는 농민들이 신라로 집단적으로 도망하는 사례도 속출하여 왕정의 지배기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 후 백제의 정치권은 지배세력의 대립과 갈등으로 혼미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지왕의 즉위 초에 벌어진 왕위계승 분쟁이었다.

#### 나. 왕비족의 교체와 상좌평제의 설치

아신왕이 죽자 왜에 인질로 체류하고 있던 태자 전지가 8년만에 귀국의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전지왕(405~420)의 즉위과정에 또 다시 왕위계승 분쟁이 발생하였다. 즉 아신왕의 맏아들로서 차기 왕위계승권을 가진 태자 전

15) 武田幸男, <高句麗好太王碑文にみえる歸王について> (《末松保和博士古稀記念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上, 1978), 79~88쪽.

16)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아신왕 7년 2월.

17) 《三國史記》권 5, 百濟本紀 3, 아신왕 7년 3월·9월.

지가 아신왕이 죽었다는 전갈을 받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을 때 큰아우인 訓解가 일시 섭정을 하면서 태자 전지의 환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때 작은 아우인 磔禮가 왕위계승의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로 형 훈해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으나, 한성사람 解忠과 그의 지지세력에 의해서 진압되었고, 이어 전지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전지왕의 즉위과정에서 백제의 지배세력은 전지 웅립파와 설례 지지파로 나뉘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지의 경우 훈해로 대표되는 일부 왕족과 전지가 귀국할 때에 그를 호위하였던 100명의 왜군<sup>18)</sup> 및 해충으로 대표되는 해씨세력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설례의 지지세력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진씨세력을 꼽을 수 있겠다. 진씨세력이 전지왕의 즉위를 계기로 한동안 정계에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씨세력은 4세기 후반 이래 병관좌평과 좌장을 역임하면서 병권을 장악하여 대고구려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아신왕 5년(396) 전투의 예와 같이 백제가 대고구려전에서 참패를 거듭하게 되자 진씨세력도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을 것이다. 아신왕 7년의 인사에서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의 패전책임을 물어 병마지휘권을 담당하는 좌장직이 진씨세력 진무로부터 沙氏세력 沙豆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또한 <광개토대왕릉비문>의 영락 6년(396) 작전의 참패로 일부 진씨세력의 유력한 귀족들이 고구려에 인질로 보내졌을 가능성도<sup>19)</sup> 상정된다. 이로 인해 진씨세력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궁지에 몰렸을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진씨세력은 자신의 거둬들인 패전을 호도하고 실추된 세력을 만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설례를 웅립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진씨세력에 의한 이러한 책동은 전지를 지지하는 해씨세력 등으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전지왕이 설례 일파에 의한 왕위찬탈의 책동을 분쇄하고 즉위하자 이듬해 정월에 즉위의례적인 성격을 가진 동명묘의 배알과 범부여족의 공통적 제의인 제천사지를 동시에 거행하였다. 이것은 새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천명하고

18) 전지가 귀국할 때에 동원된 왜군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세력으로 목씨세력을 상정하는 견해도 있다(文東錫, <4·5세기 百濟 政治體制的 變動>, 慶熙大 碩士學位論文, 1993, 35쪽). 이에 따르면 목씨세력도 전지 지지파로 분류될 수 있다.

19) 李道學, 앞의 글, 290~291쪽.

그동안의 왕위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내분을 수습하여 지배세력간의 광범위한 결속을 다지고자 한 것이었다. 이어 즉위에 따른 논공행상적인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서제인 餘信을 내신좌평으로, 解須를 내법좌평으로, 解丘를 병관좌평으로, 그리고 웅립의 공이 매우 큰 한성사람 해충을 달솔로 각각 임명하였다. 전지왕 4년(408)에는 내신좌평 여신을 새로 신설된 재상직인 상좌평에 승진·임명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정치의 실권이 진씨세력에서 해씨세력으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해충은 전지왕 웅립에 관여한 공로로 달솔관등에 오르고 漢城租 1,000석을 지급받았으며, 그 밖에 해수·해구 등 해씨세력이 병관좌평 등 중요한 요직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부상하였다. 해씨세력은 백제 왕실과 통혼하여 마침내 왕비족에 올라 「解氏王妃族時代」로 불리울 정도로<sup>20)</sup> 한동안 성세를 누렸다. 王戚인 해수는 내법좌평에 기용되었다가 비유왕 3년(429)에는 상좌평으로 승진되었고, 解丘도 병관좌평이 되어 병권을 장악하였다. 웅진천도 직후에 병관좌평이었던 解仇가 전횡을 일삼았던 것도<sup>21)</sup> 이에 해당된다. 반면에 지금까지 왕비족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던 진씨세력은 웅진시기 초까지 한동안 나타나지 않고 있어 전지왕 즉위 초의 정변에 연루되어 실세를 웅립하려다가 결국 세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로써 5세기 전반의 권력구조는 종래와 같이 왕족-왕비족 사이의 연합체제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다만 전지왕대를 기점으로 하여 지배귀족이 진씨세력에서 해씨세력으로 교체가 이루어진 점에 주목된다.

그리고 전지왕 즉위 초의 정변으로 왕권 자체도 동요되었으나, 이를 계기로 재상직인 상좌평을 설치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전지왕 4년에는 餘信을 새로 신설된 상좌평에 임명한 사실이 눈에 띈다. 상좌평의 설치는 전지왕 즉위 초의 정변에 따른 왕족간의 분열을 수습하고, 또 왜에 오랫동안 체류하였던 관계로 긴 정치적 공백을 가졌던 전지왕을 보필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로 이해된다.<sup>22)</sup> 이러한 의미에서 상좌평의 설치는 전지왕과 그의 지지세력간에 이루어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는 측면도 있다. 또한 상좌평체제는 왕

20) 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歷史學報》11, 1959), 31~35쪽.

21)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문주왕 2년 9월.

22) 梁起錫, 〈百濟 腆支王代の 政治的 變革〉(《湖西史學》10, 1982), 22쪽.

족과 유력한 귀족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도 가졌지만,<sup>23)</sup> 한편으로는 왕권과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왕족과 왕비족에게 대귀족에 대한 통제력을 위임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왕의 지위를 상징적이고 초월적인 존재로 부각시키려는 초저로 이해된다. 처음 설치된 상좌평에 전지왕이 신임하는 왕족 여신이 임명되었다는 점이나, 상좌평은 신라의 상대등제와 같이<sup>24)</sup> 국정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귀족세력을 일원적으로 통솔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설치에는 왕권강화의 측면이 보다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5세기 백제의 권력구조는 왕족과 왕비족인 해씨세력을 기축으로 한 상좌평체제를 중심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지왕은 상좌평제를 신설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그의 의도와는 달리 그가 죽은 뒤에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전지왕에 이어서 구이신왕(420~427)이 16세 정도의 어린 나이로<sup>25)</sup> 즉위하였는데, 그의 재위기간이 8년에 불과할 정도로 단명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서기》에는 목씨세력이 국정을 농단하였던 사실을 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구이신왕이 연소함에 따라 왕모인 八須夫人의<sup>26)</sup> 영향력이 강화되자, 木滿致가 왕모와 정을 통해 왕모의 권위를 등에 업고 국정을 멋대로 휘둘렀던 것이다.<sup>27)</sup> 구이신왕대에 목씨세력이 대두하게 된 배경은 전지왕의 옹립 이후 실권을 잡았던 왕족 여신과 해씨세력을 견제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sup>28)</sup> 목씨세력이<sup>29)</sup> 구이신왕대에 정치실권을 장악한 점은 기존의 유력한 귀족세력인 진

23) 盧重國은 상좌평 설치를 5세기경 백제왕권의 쇠퇴현상과 관련시켜 지배세력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파악하고 있으나(앞의 책, 141쪽), 일단 귀족세력을 일원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왕권강화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상좌평과 내신좌평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좌평이 수석좌평으로서의 내신좌평의 위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盧泰敦, 〈三國의 政治構造와 社會經濟〉,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77, 221쪽), 문주왕 때 왕제 昆支가 내신좌평에 임명되었고, 또 《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4년조에 沙宅己婁의 관직이 상좌평인 점을 볼 때 양자를 별개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24) 李基白, 〈上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95~96쪽.

25)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韓國史研究》 45, 1984), 6쪽.

26)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전지왕 즉위년.

27) 《日本書紀》권 10, 應神天皇 25년.

28) 盧重國, 앞의 책, 158쪽.

29) 목씨세력의 출자를 마한의 목지국과 관련시키고 있으며, 근초고왕대 백제의 가라 7국 정벌에 세운 전공을 바탕으로 정치적 기반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다(盧



씨와 해씨세력 중심의 권력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어 즉위한 비유왕대(427~455)에는 왕비족인 解須가 상좌평에 임명된 사실로 보아(429) 정치실권은 목씨세력에서 다시 해씨세력으로 넘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아마 해씨세력이 구이신왕대에 정치실권을 장악했던 목씨세력을 물리치고 비유왕을 옹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5세기 전반에는 왕족 이외에 진씨·해씨·목씨세력간에 정치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왕권이 극히 쇠약해져 대거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이다. 《삼국사기》에 비유왕의 죽음을 흑룡의 출현과 관련시키고 있음을 볼 때 비유왕도 이러한 와중에서 어떤 정변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으로<sup>30)</sup> 여겨진다. 개로왕이 즉위한 직후에 “선왕의 陵이 제대로 조영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고 한 것을<sup>31)</sup> 보면 비유왕의 죽음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 (2) 개로왕대의 왕권강화 시도와 파탄

비유왕이 죽은 후 개로왕(455~475)이 즉위하였는데, 그의 즉위과정도 결코 순탄치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삼국사기》에는 이례적으로 개로왕 즉위 초부터 14년까지의 기록이 없고,<sup>32)</sup> 또 개로왕 부친의 유골이 무덤조차 조영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고구려군에 의해 한성이 공략당할 때 개로왕을 죽인 再曾桀婁와 古爾萬年이 백제에서의 어떤 정변에 연루되어 고구려로 망명한 자였다는 점<sup>33)</sup> 등이 지적될 수 있다. 개로왕의 옹립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정치세력은 일부 왕족과 목씨세력 등으로 여겨진다. 즉 개로왕이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데 큰 공로가 있는 백제의 중신 11명을 대상으로 劉宋에 작호의 제수를 요청하였는데(458),<sup>34)</sup> 그 가운데 8명의 왕

重國, 앞의 책, 155~156쪽 및 〈百濟의 木婁(羅)氏 研究〉, 《百濟社會의 諸問題》-제7회 백제연구 국제학술대회 발표요지-,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4, 173쪽).

30)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韓國史研究》 50·51, 1985), 3쪽.

盧重國, 앞의 책, 140~141쪽.

31)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9월.

3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 3, 1976), 139쪽.

33) 《三國史記》 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9월.

34) 《宋書》 권 97, 列傳 57, 百濟國.

족을 제외하고 목씨세력으로 보이는 沐衿이 일반 귀족 중 가장 높은 서열인 제3품 龍驤將軍으로 제수받았던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개로왕대는 대내적으로 대성귀족 세력들의 발호를 제어하여 왕권 중심의 지배질서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더욱 첨예화된 고구려와의 군사적 긴장 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개로왕은 즉위 초의 왕위계승 분쟁을 수습하고 왕권의 지배기반을 넓히기 위해 왕족 중심의 왕권 강화책을 펴나가게 되었다. 상좌평에 그의 동생인 文周를 임명하여 왕실세력의 결속을 다지게 하고, 또 다른 동생인 昆支에게는 기존의 대성귀족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병권을 장악케 하는 등<sup>35)</sup> 왕족을 중용하여 친정체제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리고 기존의 귀족 중심의 연합체제를 고수하려는 진씨·해씨·목씨 등과 같은 대성귀족세력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미 살폈듯이 유송에 작호 제수를 청한 중신들이 대부분 왕족이었다는 데서 당시 왕족의 정치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 개로왕의 동생인 문주와 곤지가 行輔國將軍과 行征虜將軍左賢王에 각각 보임되고 있어서<sup>36)</sup> 작호 제수의 대상자 중 높은 서열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곤지는 흉노와 같은 북방의 유목기마민족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군주(單于·可汗)의 다음가는 자리인 좌현왕에 보임되고 있는 것<sup>37)</sup>을 보면 개로왕의 권력기반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개로왕 18년(472) 북위에 청병사로 파견된 長史 餘禮는 ‘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라는 작호를 겸대하고 있는 것<sup>38)</sup>으로 보아 그는 왕족이면서도 개로왕과 통혼관계를 맺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왕족 사이에 근친혼이 행해졌다는 것은 기존의 왕비족의 지위뿐 아니라 정치 운영상의 변화를 시사해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

한편 盧重國은 개로왕에 대한 작호 수여의 요청은 대외교역에 있어서 기득권 인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으나(〈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 《韓國史論》 4, 서울대, 1978, 112~113쪽), 이는 작호수여가 갖는 부차적인 의미만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는 지배세력의 신분서열을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35) 李道學, 앞의 글(1985), 13쪽.

36) 李基東,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歷史學報》 62, 1974), 21쪽.

37) 坂元義種,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吉川弘文館, 1978), 69쪽.

38)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이와 같이 개로왕대에는 왕족이 상좌평과 같은 요직은 물론 병권과 외교권까지 독점하여 왕권 중심의 지배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개로왕은 천명적 질서에 가탁하여 스스로 대왕이라 자처하고 그 신료들을 王・侯・太守로 분봉하여 백제류의 천하질서를 갖추면서 왕권의 전제화를 모색해 나갔다.<sup>39)</sup> 아울러 궁성의 수축, 왕릉의 조영, 한강변 蛇城의 동쪽에서 崇山の 북쪽에 이르는 치수와 대토목공사를 착수함으로써 강력한 왕권의 힘을 과시하였다.<sup>40)</sup>

한편 대외적으로 고구려의 군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다각적인 외교책을 강구하였다. 신라와는 비유왕 7년(433)에 맺은 나제동맹체제를 기본 축으로 하여 고구려의 남진에 대처하였고, 개로왕 원년(455)에는 신라의 원병과 함께 고구려군을 격퇴하기도 하였다.<sup>41)</sup> 동왕 7년에는 왕제 곤지를 일본 河内の 近飛鳥地方에 파견하여<sup>42)</sup> 유사시에 청병을 대비하여 외교관계를 긴밀히 하였으며, 勿吉과도 연합하여<sup>43)</sup> 고구려를 측면에서 견제하고자 하였다. 남조인 劉宋과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남조일변도의 외교책에서 벗어나 고구려와 긴밀한 외교교섭을 맺고 있는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sup>44)</sup> 이러한 대고구려 봉쇄망을 형성하려는 백제의 전략은 도리어 고구려를 자극시켜 그 침입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개로왕의 왕족을 중심한 왕권강화책은 결국 대성귀족세력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특히 고구려군의 대대적인 침공이라는 대외적인 요인과 상승작용

39) 梁起錫, <5세기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 (《史學研究》 38, 1984), 64~65쪽.

한편 다음의 글들은 이 왕・후제를 지방통치체제와 관련시키고 있는데 이는 왕권을 정점으로 해서 중신들을 서열화하기 위한 관직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六興出版社, 1961), 109~114쪽.

坂元義種, 앞의 책, 99~102쪽.

金英心, <5・6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서울大 國史學科, 1990), 73~90쪽.

40) 대규모 역사를 전제권력의 과시와 관련시킨 다음의 기사가 참고된다. “임금이란 백성들이 우러러 보는 바로서 궁전이 장엄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위엄을 보이겠는가”(《三國史記》 권 49, 列傳 9, 倉助利).

41)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39년.

42) 《日本書紀》 권 14, 雄略天皇 5년 4월.

43) 《北史》 권 94, 列傳 82, 勿吉.

44)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하여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부득이 웅진으로 남천하는 의외의 결과를 빚어냈다. 개로왕 자신도 “나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백성도 줄어들고 군대도 약해졌다”라고<sup>45)</sup> 후회하였듯이 무리한 토목공사를 빈번히 일으킴으로써 국력을 낭비하고 민심을 이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고이만년과 재증결루와 같은 일부 중앙귀족의 이탈을 가져왔다. 결국 개로왕 24년(475) 9월 고구려의 장수왕은 3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갑자기 들이닥쳐 왕도인 한성을 7일만에 함락시켰던 것이다. 이 전쟁으로 백제는 영토의 손실과 함께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개로왕 자신뿐 아니라 태후·왕자들이 고구려군에 의해 살해되었고,<sup>46)</sup> 8천여 명의 인민이 포로로 끌려갔으며,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 일대를 송두리째 고구려에 빼앗기게 되었다. 더구나 백제 왕실의 대제전으로서 범부여족의 결속을 다지고 동맹의 정통 계승자임을 표방하는 동명묘 제사는 왕도 한성을 빼앗김으로써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sup>47)</sup> 특히 개로왕의 전사는 그 동안 추진해 온 왕권강화책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백제는 웅진천도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 2) 백제와 신라의 동맹

4세기 말과 5세기 초에 신라는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백제와 적대관계를 유지해 왔다. 〈廣開土大王陵 碑文〉에 의하면 신라는 내물왕 44년(399)에 고구려의 보병과 기병 5만 명의 구원을 받아 자기 나라에 침입해 온 백제·가야와 왜의 연합군을 가야지역에까지 추격하여 섬멸한 적이 있었다. 당시 신라가 고구려와 동맹관계를 갖게 된 것은 우선 국초부터 빈번히 침략을 일삼던 왜세력에 대항하기 위하여 왜와 동맹관계에 있는 백제보다 고구려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리고 내물왕계 김씨 세습체제를 확립하기

45)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개로왕 21년 9월.

46)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20년.

47) 盧明鎬, 〈百濟의 東明神話와 東明廟〉(《歷史學研究》X, 전남대, 1981), 45~46쪽. 개로왕대에 왕권강화를 위한 이념으로 불교를 크게 숭신하였기 때문에 “建邦之神”(《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6년 2월)으로 지칭되는 동명묘 배알을 중단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文東錫, 앞의 글, 44~45쪽).

위해서는 경쟁세력인 석씨·박씨세력 및 다른 왕실세력 등을 견제, 또는 정략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눌지왕의 왕위계승 과정에서 고구려세력이 일정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sup>48)</sup> 고구려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그런데 백제가 신라와 화친을 맺고 고구려와 적대관계를 갖게 된 것은 비유왕 7년(433)의 일이었다.<sup>49)</sup> 이 때의 화친은 백제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 해 7월에 백제가 화친을 먼저 제의하였고, 이듬해 비유왕이 양마 2필과 흰 매를 신라에 예물로 보냈다. 신라의 눌지왕도 이에 대한 화답으로 황금과 명주를 백제에 보냄으로써 양국간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로써 나제양국은 그 동안의 적대관계를 버리고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이다.

백제가 신라와 우호관계를 맺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백제의 대고구려 봉쇄전략의 차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백제는 고구려의 평양천도에 따른 남진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남조국가인 송과 긴밀한 외교적 교섭을 전개하였다. 평양천도(427)부터 한성함락(475)에 이르기까지 백제와 송의 외교적 교섭은 《宋書》百濟傳이나 《南史》宋本紀에 의거해 볼 때 9회로 나타나고 있어서 양국간에는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북위와 송의 남북조 양국에 대해 양면 외교를 펼치고 있던 고구려를 외교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백제는 신라와 수교한 이후에도 왕제 곤지를 파견하여 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461),<sup>50)</sup> 새외민족인 勿吉과도 연합하여<sup>51)</sup> 고구려를 배후에서 견제하고자 하였다. 더구나 백제는 남조 일변도의 외교책에서 벗어나 고구려와 긴밀한 교섭관계를 맺고 있던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의 정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고구려 장수왕의 왕녀를 북위 현종의 후궁으로 맞아들이는 문제로<sup>52)</sup> 인하여 양국이 잠시 불편한 관계로 접어들자 백제 개로왕은 이 기

48)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즉위년.

《三國遺事》권 1, 紀異 2, 제18 實聖王.

49) 《三國史記》권 25, 百濟本紀 3, 비유왕 7년 7월, 8년 2월·9월·10월 및 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17년 7월, 18년 2월·9월·10월.

50)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5년 4월.

51) 《北史》권 94, 列傳 82, 勿吉.

52) 《魏書》권 100, 列傳 88, 高句麗.

회를 틈타 북위에 고구려 정벌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활동을 통해서 백제는 중국의 북위와 송·신라·가야·왜·물길을 연결하는 다각적인 외교를 전개하여 대고구려 봉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백제는 당시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신라를 고구려로부터 유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라에 접근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중반경까지 대체로 고구려군의 출병(400)과 주둔,<sup>53)</sup> 왕자 實聖과 卜好의 인질과견, 불교 수용<sup>54)</sup>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정하게 고구려의 정치적·문화적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다. 그러나 신라가 성장·발전하는 데에는 고구려의 정치적·군사적 간섭이 오히려 제약이 되는 실정이었다. 나제간의 화친은 신라의 입장에서 볼 때 고구려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자립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나제간의 화친은 백제의 고구려에 대한 봉쇄전략과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는 신라의 필요성에 따른 양국간의 이해가 합치되어 이루어진 산물로 이해된다. 이 일로 신라는 고구려와의 동맹관계에서 벗어나 친백제정책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에 이후 삼국의 항쟁사에서 큰 영향을 미쳐 고구려와 나제연합의 대결구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5세기 후반 삼국의 정세는 힘의 우위에 선 고구려가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백제와 신라를 번갈아 침략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sup>55)</sup> 그러나 이 시기 고구려와 백제간의 전투는 4회인 반면에, 고구려와 신라간의 전투는 悉直原(삼척)에서의 고구려변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하여<sup>56)</sup> 5세기 말까지 모두 8회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주로 신라를 공격목표로 군사적 공세를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제양군이 연합하여 고구려의 침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각각 3회씩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백제는 고구려의 대대적인 한성침공과 같은 국가 존망의 위기로부터 신라의 구원을 받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는 소지왕 3년(481)에 彌秩夫(홍해)까지 쳐들어온 고구려와 말갈

53) 《中原高句麗碑》에 보이는 “新羅土內幢主”라는 문구와 《日本書紀》雄略天皇 8년 2월조의 기사를 통해서 당시 고구려군이 신라 영토내에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준다.

54) 《三國史記》권 4, 新羅本紀 4, 법흥왕 15년.

55) 金英河, 〈高句麗의 巡狩制〉(《歷史學報》106, 1985), 47~50쪽.

56) 《三國史記》권 3, 新羅本紀 3, 눌지왕 34년 7월.

로부터 왕도가 위협당하자 백제와 가야의 구원을 받아 이를 격퇴시킨 일도 있었다.<sup>57)</sup> 이처럼 나제양국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고구려의 침략을 막지 못할 경우 상호 군사적 요청으로 공동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갔다. 나제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군사동맹관계로 발전시킨 것은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 때의 일이었다. 소지왕은 동성왕의 요청에 따라 이별찬 比智의 딸을 보내어 혼인시킴으로써(493)<sup>58)</sup> 양국은 혼인관계를 통하여 군사동맹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게 되었다.

〈梁起錫〉

## 2. 웅진천도와 중흥

### 1) 동성왕의 활동

#### (1) 웅진천도와 정정의 불안

개로왕 21년(475) 장수왕이 이끄는 3만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백제는 불의에 왕도 한성이 함락되고 국왕이 전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무렵 개로왕의 동생인 文周는 신라로부터 원병 1만 명을 얻어 가지고 돌아오는 중이었으나 이미 고구려군은 퇴각하였고 개로왕은 참살당한 상태였다. 이에 문주는 왕위에 오른 후 10월에 祖彌桀取·木協滿致와 같은 중신들의 보필을 받아 부득이 남쪽의 熊津(公州)으로 도읍을 옮기게 되었다. 공주지역은 북으로 차령산맥과 금강에 둘러싸여 있고, 동으로는 계룡산이 막아서 고구려와 신라로부터의 침략을 방어해 주는 천험의 요새지였다. 이곳을 관통하여 흐르고 있는 금강을 통해 서해로 나아갈 수 있고, 또 남쪽에는 곡창인 호남평야가 펼쳐져 있어서 關防뿐만 아니라 교통과 경제의 요충지로서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문주왕의 웅진천도는 고구려군의 침공에 의해 갑작스럽게 행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웅진은 우선 고구려의 직접적인 예봉을 피할 수 있고, 또 후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도로 선

57)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소지왕 3년 3월.

58)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소지왕 15년 3월.

정될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 웅진시대(475~538)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

웅진천도는 개로왕이 패사한 지 불과 한 달만에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웅진이 새 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먼저 옛 왕도인 한성에서 옮겨 온 민호들을 귀족세력의 통제하에 일정지역에 분산시켜 수용·정착케 하는 일부터 착수하였다. 문주왕 2년(476) 2월에는 남으로 옮겨온 한성민호를 아산에 있는 大豆山城과<sup>1)</sup> 직산의 慰禮城<sup>2)</sup> 등에 거주케 하였다. 이와 같이 유민들을 새 왕도와 그 부근에 안치시킴으로써 뜻밖에 천도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려 했던 것이다.

이어 새 왕도인 웅진성 안의 궁전 및 여러 정청 등 지배층을 위한 시설물들을 갖추어 나가는 일에 착수하였다. 웅진천도가 상당히 위급한 정황 속에서 불과 한 달만에 이루어졌고, 또 성왕 4년(526)에 웅진성을 처음 「修葺」했다는 《삼국사기》의 기사를 감안해 보면 왕도의 중심성인 웅진성을 새로 신축할 겨를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천도 직후에는 기존의 성곽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현재 2,660m에 이르는 包谷式의 공산성 중에서 현존하고 있는 테피식의 토성 부분이 당시의 웅진성의 규모로 추정된다.<sup>3)</sup> 웅진성 안의 궁실은<sup>4)</sup> 문주왕 3년(477)과 동성왕 7년(485)에 걸쳐 중수되었는데, 南堂과 臨流閣<sup>5)</sup> 등 부속 시설물들이 하나씩 조영됨에 따라 제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곧 이어 왕도의 도시계획안을 마련하여 웅진교를 세우고 도로망을 정비하고,<sup>6)</sup> 또 웅진성의 방위를 위해 그 주변 일대의 요지에 沙井城, 炭岷 등 관방

1)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의 貴族勢力〉(《百濟研究》 9, 忠南大 百濟研究所, 1978), 12~13쪽.

2) 李基白, 위의 글, 14~15쪽.

3) 俞元載, 〈百濟 熊津城研究〉(《國史館論叢》 45, 國史館編纂委員會, 1993), 65~66쪽.

4) 공산성내 쌍수성 부근의 백제시대 건물터에서 다수의 기와류, 토기류 및 청동경이 출토되어 이곳을 웅진 도읍지의 왕궁지로 추정하고 있다(安承周, 〈百濟都城(熊津城)에 대하여〉(《百濟研究》 19, 1988), 17~20쪽; 俞元載, 〈熊津都城의 羅城問題〉(《湖西史學》 18·19, 1992), 40~41쪽).

5)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2년 춘.

공산성의 남문인 진남루와 동문지의 중간부분에서 백제시대 건물지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서 와당류와 자기류가 출토되어 임류각터로 추정하고 있다(安承周, 위의 글, 20쪽).

6)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0년.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이제 웅진은 행정의 중심지로서, 교통의 요지로서, 관방의 요충지로서 미흡하나마 왕도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일련의 토목공사는 뜻밖의 천도로 쇠미해진 왕권을 진작시키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이었지만, 어려운 재정형편과 잦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무리한 면이 많았다.

이러한 새 왕도의 건설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웅진천도 직후의 정치상황은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천도 초기의 백제는 한성의 함락과 한강유역의 상실, 개로왕 직계왕통의 단절 등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한 가운데 권신의 발호와 세력다툼, 이로 인한 왕권의 실추 등으로 이어져 일련의 정정불안이 야기된 것이다.<sup>7)</sup> 이러한 와중에서 문주왕(475~477)은 만아들 三斤을 태자로 책봉하고, 아우인 昆支를 내신좌평에 임명함으로써<sup>8)</sup> 개로왕 직계왕통의 단절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왕위계승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문주왕은 당시 정치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병관좌평 解仇의 발호를 제어하지 못하다가 그에 의해 재위 3년만에 살해되고 말았다. 해구는 문주왕 2년에 천도 직후의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병관좌평에 오르면서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대두하였다. 그 동안 취약한 왕권을 보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내신좌평 곤지가 이듬해 7월에 사망하게 되자<sup>9)</sup> 실권을 장악한 해구는 마침내 정치적 배경을 상실한 문주왕을 시해한 다음 13세에 불과한 삼근왕(477~479)을 옹립하였다.

해구는 어린 삼근왕으로부터 일체의 군국정사를 위임받아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여 국정을 오로지 하였다. 이 때의 좌평 眞男과 덕술 眞老와 같은 진씨세력이 중심이 되어 해구를 견제하고 나서자 형세가 불리해진 해구는 금강유역에 기반을 둔 신진세력의 하나인 燕氏세력과 손을 잡고 대두성을 거점으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 반란은 결국 덕술 진로 등에 의해 평정되었다.

7) 웅진시대의 정치과정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一潮閣, 1988), 146~161쪽.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位繼承과 王權의 性格〉(《韓國史研究》 50·51, 1985), 12~34쪽.

梁起錫, 《百濟 專制王權 成立過程研究》(檀國大 博士學位論文, 1990), 129~149쪽.

8)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문주왕 3년 4월.

9) 昆支의 죽음을 흑룡의 출현기사와 관련시켜 볼 때 解仇가 곤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李道學, 앞의 글, 13쪽 및 盧重國, 앞의 책, 150쪽).

## (2) 웅진시대의 정치적 변화상

무령왕 즉위 이전까지의 웅진시대에 나타난 정치적인 변화 가운데 먼저 개로왕 직계의 왕통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왕위계승상의 일대 혼란이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고구려가 한성을 침공할 때 개로왕을 비롯하여 왕후와 왕자들이 거의 피살되었던 것으로<sup>10)</sup> 여겨지는데, 《新撰姓氏錄》에 개로왕의 후예들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개로왕 직계의 왕통이 단절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왕통이 끊어진 비상시국을 당하여 대통을 이을 만한 인물로는 왕제인 문주와 곤지 정도였다. 곤지는 개로왕 4년(458) 당시의 작호가 行征虜將軍左賢王으로서<sup>11)</sup> 작호를 받은 11명 중 서열이 제일 높았을 뿐 아니라 문주보다도 서열이 더 높았다. 그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군사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청병사로 활동하였고, 그 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다지기 위해 왜에 파견된 상태였기 때문에(461)<sup>12)</sup> 문주와 왕위를 이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동성왕이나 무령왕의 즉위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sup>13)</sup> 웅진시대의 왕위계승은 한동안 부계직자의 계승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기보다는 일정 가계의 범위 안에 있는 왕족들이 유력한 귀족세력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여 왕위에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서기》에 이들 왕의 친족관계에 대해 여러 이설을 전하고 있는 것은<sup>14)</sup> 이 시기 왕계의 혼란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종래 태자가 어려서 정사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었으나,<sup>15)</sup> 이 시기에는 삼근왕과 동성왕의 경우처럼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왕비족의 역할과 지위상에 있어서 점차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종래에는 왕족과 왕비족이 정치적으로 제휴하여 왕권을 강화시켜 나

10)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20년 所引《百濟記》.

11) 《宋書》권 97, 列傳 57, 百濟國.

12)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5년 所引《百濟新撰》.

13) 후술하겠지만 동성왕과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로서 무령왕이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었다고 한다.

14) 《日本書紀》雄略天皇 5년조에는 무령왕이 개로왕의 아들로 되어 있고, 武烈天皇 4년조의 《百濟新撰》에는 무령왕이 동성왕의 배다른 형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어 웅진시대 왕계기록의 혼란상을 보여주고 있다.

15) 사반왕·계왕·아신왕이 이 경우에 속한다.

았으며, 한성시대에 진씨와 해씨세력이 왕비족으로 큰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개로왕대부터 駙馬都尉 餘禮의 경우처럼<sup>16)</sup> 왕족간에 근친혼을 하거나, 또 동성왕이 신라에 청혼하여 이별찬 比智의 딸과 혼인을 맺는 것 등에서 <sup>17)</sup> 점차 왕비족과의 세력연합을 통한 기존의 정국운영 방식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엿보이고 있어서 주목된다.

한편 웅진천도로 인해 귀족세력들의 지위와 위상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한성에 세력기반을 가졌던 귀족세력들이 일단 남천함에 따라 지배세력의 구성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웅진시대의 귀족세력은 진씨·해씨·목씨 등과 같은 구귀족세력과 금강유역의 토착 세력기반을 갖고 웅진천도 이후 중앙정계에 진출하였던 백씨·연씨·사씨 등과 같은 신진 귀족세력으로<sup>18)</sup> 대별해 볼 수 있다. 웅진시대 초기에는 여전히 구귀족세력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천도로 인해 그 세력기반이 삭감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성시대 후기에 나타나는 왕족-왕비족에 의한 권력 독점현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다.

웅진천도 이후 내부정정의 불안으로 인해 왕권의 귀족 통제력이 이완됨에 따라 종전의 공적인 권력체제인 상좌평제나 왕비족과의 세력연합을 통한 정치운영이 붕괴되고, 대신 물리적 지배수단인 병권을 장악한 실세귀족이 병관 좌평직을 통해 정치권력을 차지하였다. 이들 실세귀족은 권력기반을 넓히기 위해 재지의 유력한 신진세력들과 정치적으로 제휴하고자 하였다. 웅진시대 초기의 권신 해구와 신진세력인 은술 燕信간에 이루어진 세력연합이 그 좋은 예라<sup>19)</sup> 할 수 있다. 실세귀족은 배타적으로 정치권력을 독점해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들을 제거해 나갔고, 심지어 그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면 국왕마저 살해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해구는 유력한 왕족인 내신좌평 곤지와 웅진천도의 주역인 목협만치를 제거하였고,<sup>20)</sup> 문주왕마저 살해한 다음 어린 삼근왕을 옹립하여 국정을 농단하였던 것이다. 실세귀족들은 형세가

16) 《魏書》 권 100, 列傳 88, 百濟.

17) 《三國史記》 권 3, 新羅本紀 3, 소지왕 15년 3월.

18) 신진세력들의 경우 백씨는 공주, 사씨는 부여, 연씨는 온양일대에 각기 세력근거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李基白, 앞의 글, 10~18쪽).

19)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삼근왕 2년 춘.

20) 木協滿致가 解仇와 권력을 다투다가 폐퇴하여 일본으로 건너간 시기를 477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山尾幸久, 〈日本書紀のなかの朝鮮〉, 《日本と朝鮮の古代史》,

불리해지면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삼근왕 때에 해구가 진씨세력으로부터 견제를 당하자 연합세력인 연신과 함께 대두성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실이 바라 그러한 예에 속한다. 해구의 세력이 몰락한 이후 동성왕대에는 해구의 난을 평정한 진씨세력의 眞老가 한동안 실세귀족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동성왕 19년(497)부터는 종래 세력을 누렸던 해씨와 진씨 대신에 신진세력들이 부상하고 있어서 신·구세력간의 어떤 변화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즉 병관좌평 진로가 죽은 뒤 그 후임에는 신진세력인 달솔 燕突이 기용되었고, 숙위병사의 업무를 관장한 위사좌평 苜加는 「왕의 左右」로 지칭될 정도로<sup>21)</sup> 실세귀족으로 부상하였다. 이는 동성왕이 신진귀족들을 과감히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려는 작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진세력들은 구귀족들의 정치적 역할을 견제하였고, 왕은 신·구세력간의 대립과 조정을 통해 왕권을 보다 강화해 나아가려 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신진세력이 크게 중용되었다고 하더라도, 백가의 경우 그가 가진 관직이 종래와 같이 병관좌평이 아니고 숙위병사를 담당하는 위사좌평이었다는 점은 이제 왕권을 배경으로 국왕의 측근세력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백가가 가림성으로 전보될 정도로<sup>22)</sup> 이들 신진세력은 왕권의 일정한 통제 아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성왕대 이후 금강유역에 기반을 가진 신진세력이 크게 중용되었던 점은 구귀족세력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던 한성시대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백제왕권의 지배력 행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백제 세력권에 있던 탐라국과<sup>23)</sup> 가야 제국이 한때 반기를 들어 이탈을 꾀한 적이 있었다. 즉 동성왕 원년 가라왕 荷知가 남제로부터 「輔國將軍 本國王」으로 책봉을

三省堂選書 57, 1979, 136쪽). 한편 이 목협만치를 구이신왕대의 木滿致와 같은 인물로 보고 목만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鈴木靖民, 〈木滿致と蘇我氏〉,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50, 1981, 66~69쪽), 양자의 활동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명이인으로 보고 있다(盧重國, 앞의 책, 139쪽).

21) 동성왕이 임류각을 짓고 거기서 밤새도록 환락을 같이한 「左右」는 백씨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李基白, 앞의 글, 18쪽).

22)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3년 8월.

23)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0년 8월.

받았는데,<sup>24)</sup> 이는 가야 제국이 근초고왕대 이래로 백제와 일정한 부용관계를 유지했던 사실을<sup>25)</sup> 감안해 보면 이례적인 일이었다. 천도 이후 백제왕권의 지배력 행사에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또한 백제의 해상활동 및 중국과의 교섭도 고구려에 의해 빈번히 차단당하기도 하였다. 문자왕 2년과 동성왕 6년(484)에 중국으로 가던 사행이 고구려의 항로차단으로 인해 중단된 적이 있었다. 이러한 제해권의 상실은 해상무역을 통한 왕정의 물적 기반의 약화를 가져왔고, 왕위계승에 따른 정통성 확보와 백제국가의 존립을 위한 외교활동에 큰 손실을 입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거듭된 자연재해의 발생과 무리한 토목공사는 농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웅진시대의 水·旱災 등 자연재해와 토목관계 기사는 거의 동성왕대에 집중되고 있다.<sup>26)</sup> 동성왕 13년과 21년에는 극심한 기근으로 대규모의 유민이 발생하여 신라와 고구려로 도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민의 유리현상은 웅진시대에 들어와서 남천과 정치적 혼란, 전쟁, 역질, 자연재해 등으로 더욱 가속화되었다. 대규모 유민의 발생은 국가의 조세수취나 역역동원에 큰 영향을 줄 정도로 왕정의 인적·물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동성왕대에는 그 동안 쇠미해진 왕권을 진작시키려는 의도에서 무리한 토목공사가 빈번하게 벌어졌는데, 이 또한 농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자연재해와 농민들의 과중한 역역부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마련치 못한 상황에서 농민의 유리현상은 더욱 조장되었다. 동성왕 21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과 도적이 횡행하였으나 왕이 이재민에 대한 진휼책을 거부하는 바람에 한산인 2천여 호가 고구려로 도망하는 일이 있었다. 또한 왕궁 안에 호사스러운 임류각을 지어 그 주위에 못을 파고 기이한 새들을 기르게 하였는데,<sup>27)</sup> 왕권을 과시하려는 데 급급한 나머지<sup>28)</sup> 과중한 역역의 부담과 재

24)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加羅國 建元 원년. 가라왕 荷知는 고령의 대가야왕으로 보고 있다(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106쪽).

25) 千寬宇, 〈復元加耶史(中)〉(《文學과 知性》 29, 1977), 915~918쪽.

26) 동성왕대 수·한재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기는 4년 10월(대설), 13년 6월(수재), 동 7월(기근), 14년 4월(대풍), 19년 6월(수재), 21년(한재), 동 10월(역질), 23년 5월(한재)이다.

27)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3년 춘.

28) 《三國史記》권 49, 列傳 9, 倉助利.

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거듭된 자연재해의 발생과 진휼대책의 불비 및 무모한 토목공사 실시 등으로 대규모의 유민들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이들이 왕권의 지배력을 이탈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왕정의 인적·물적인 기반을 축소시켜 왕권의 지배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 (3) 동성왕의 왕권강화책과 신진세력의 등장

#### 가. 동성왕의 즉위와 신진세력의 등장

천도 후 한동안의 정정불안을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시켜 왕권의 전제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동성왕(479~501) 때의 일이었다. 《삼국사기》의 인물평에서 보듯이 동성왕은 과단성 있게 왕권강화정책을 추진하여 후일 성왕의 중흥정치의 밑바탕을 마련하였다.

천도 직후 왕권의 기반이 취약한 문주왕을 시해한 다음 어린 삼근왕을 옹립하였던 권신 해구세력이 난을 일으켰으나 진씨세력인 덕술 진로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어 삼근왕 역시 겨우 재위 3년만에 죽고, 그 뒤를 이어 문주왕의 동생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왕위를 이었다. 그는 삼근왕의 사촌이었고, 그 다음 왕인 무령왕의 배다른 동생이었다.<sup>29)</sup> 《일본서기》에 의하면 동성왕은 왜에 체류하고 있다가 삼근왕이 죽자 왜군의 도움을 받아 백제로 건너와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sup>30)</sup> 물론 이 기사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동성왕의 즉위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 도래씨족의 전승을 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그를 옹립한 핵심세력은 해구의 난을 평정한 덕술 진로로 대표되는 진씨세력이었음이 분명하다. 동성왕 4년에 해구의 난을 토평할 때 핵심적 역할을 한 덕술 진로가 兵官佐平兼知内外兵馬事로 임명되어 동성왕 초반에 병권을 장악한 사실이 참고된다. 곤지의 아들인 동성왕이 즉위하게 된 배경은 우선 개로왕과 문주왕의 직계왕통이 끊어진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고구려군의 갑작스런 침입에 따른 한성함락으로 인해 개로왕의 직계

29) 《日本書紀》권 16, 武烈天皇 4년 所引《百濟新撰》.

30)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23년 4월.

가 단절되었고,<sup>31)</sup> 또 문주왕의 직계왕통도 어린 삼근왕이 일찍 죽음에 따라 거의 단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구가 어린 삼근왕을 옹립하여 군국정사의 일체를 농단했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진씨세력 역시 이러한 의도에서 정략적으로 어린 동성왕을 옹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sup>32)</sup> 동성왕은 왜에 오랫동안 체류했던 관계로 국내사정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자신의 세력기반마저 미약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왕은 그의 옹립에 관여했던 실세귀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제어해 나아가면서 왕권강화를 이루어 나아가는가의 문제는 그에게 부여된 당면과제였다.

동성왕이 추진한 일련의 왕권강화책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당시 지배세력의 구성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신진세력 연돌이 병관좌평으로 기용되는 동성왕 19년(497)을 기준으로 하여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기의 경우 《삼국사기》에 의하면 구귀족세력은 진로 이외에는 별다른 인물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는 해구의 난을 토평하고 동성왕을 옹립한 공으로 병마권을 장악한 실세귀족의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동성왕 6년부터는 신진세력인 사씨·백씨·연씨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남제에 사행을 떠났던 내법좌평 沙若思(동성왕 6년 7월), 새로이 위사좌평에 임명된 백가(동 8년 2월), 달솔이 된 연돌(동 12년 9월)이 보이고 있다. 그 밖에 동성왕이 남제에 보낸 외교문서에는 동성왕 12년의 경우 7명의 수작 대상자는 왕족 餘氏가 3명, 都漢王 姐瑾, 중국식 성을 가진 외교사절 3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동성왕 17년의 경우 沙氏 1, 贊氏 1, 解氏 1, 木氏 1, 중국식 성을 가진 외교사절 4명 모두 8명이 보이고 있다.<sup>33)</sup>

이와 같이 전기에는 왕족과 구귀족세력 진씨·해씨·목씨, 그리고 신진세력인 사씨·백씨·연씨 등의 지배세력이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동성왕 이전에 비해서 백씨 등 새로운 성씨세력들이 현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왕족과 구귀족 중심의 정치운영에 이제부터 신

31)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20년 所引《百濟記》.

32) 李道學, 앞의 글, 16쪽.

33)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百濟國.

신진세력이 가세하게 된 것이다. 신진세력이 대거 등용된 배경은 동성왕이 실세인 구귀족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벗어나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정국을 안정시키려 했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귀족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강유역에 토착적 기반을 갖고 세력 확장을 꾀하던 신진세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신진세력의 등장은 지배층의 폭을 넓혀 왕권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백제사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따라서 동성왕대 전기에는 아직도 웅진시대 초기의 관행인 실세귀족을 중심으로 정국을 운영하였으나, 금강유역의 신진세력들이 점차 중앙정계에 진출하는 데 따라 신·구세력간의 균형 위에서 왕권의 안정기반을 보다 강화하려 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한편 후기에는 신진세력들이 더욱 중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진로가 죽고난 이후 연돌을 병관좌평에 기용하였는데, 신진세력이 병마권을 담당하는 병관좌평에 임명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로서 주목된다. 숙위병사의 업무를 관장한 위사좌평 백가가 「王의 左右」로 지목될 정도로<sup>34)</sup> 성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사료상에 구귀족의 활동이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많은 신진세력이 중앙의 요직에 기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동성왕대 후기의 정국운영 방향을 짐작할 수 있거니와, 이제 신진세력이 병권을 장악한 것을 계기로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진세력의 독주는 왕권의 강화와 안정기반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방해물이 되었다. 이에 동성왕은 신진세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세력개편을 단행하였다. 沙井城을 축조하여 한솔 毗陁를 보내 진수케 하였으며,<sup>35)</sup> 가림성을 축조하여 웅진에 세력기반을 가진 위사좌평 백가를 보내<sup>36)</sup> 관장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동성왕의 견제책은 신진세력으로부터 큰 반발을 사게 되어 결국 왕은 백가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동성왕은 신진세력을 과감히 등용하여 새로운 지배세력 확립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신진세력을 과도하게 등용함으로써 오히려 신·

34) 李基白, 앞의 글, 18쪽.

35)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0년 7월.

36) 《三國史記》 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23년 8월.



구세력간의 대립과 조정 역할을 통한 왕권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 나. 동성왕의 왕권강화책

정치적 혼미 속에서 즉위한 동성왕은 금강유역의 신진세력을 과감히 등용함으로써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권의 안정기반을 구축하여 천도에 따른 정정불안을 수습하여 나갔다. 이를 위해 그는 대내적으로 지배세력의 개편작업, 신라 왕실과의 통혼, 왕·후·태수제 실시 및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실추된 왕권을 진작시키려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기존의 나제동맹을 축으로 신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구려에 공동으로 대처하였고, 또 남조국가인 南齊와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먼저 웅진이 새 왕도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궁실과 임류각 및 웅진교를 가설하였고, 牛頭城·沙峴城·耳山城·沙井城 등 왕도 주변의 방어시설을<sup>37)</sup> 구축하였다. 이 시기에 크고 작은 토목공사가 빈번히 실시된 것은 그 동안 실추된 왕권을 진작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러한 관방의 요지에 신진세력들을 진출시켜 진수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적극적인 지방지배를 꾀하는 동시에 왕권 중심으로 중앙 귀족세력들을 재편성하려는 왕권강화의 측면도 갖고 있다. 그리고 지배력이 직접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거점지역에는 이른바 지명·왕·후제를 실시하였다.<sup>38)</sup> 이는 그의 지배체제 확립과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귀족세력들에게<sup>39)</sup> 남제로부터 공인받은 형식을 빌어 작호를 수여한 것이다. 그 분봉지역도 영산강유역을 비롯한 전라도 일대에 걸쳐 있었는데,<sup>40)</sup> 후에 무령왕대에 실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擔魯制 실시와<sup>41)</sup> 깊은

37) 웅진시대 웅진성의 방어체제에 대해서는 俞元載, 앞의 글, 77~88쪽 참조.

38) 坂元義種,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吉川弘文館, 1978), 96~102쪽.

梁起錫,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史學研究》 38, 1984), 65~78쪽.

39) 《南齊書》백제전의 ‘魏虜’ 기사를 490년 백제와 북위간에 전쟁을 벌인 사실로 이해하였으나, 최근 백제와 싸운 상대를 ‘匈奴’로 보고 이를 고구려로 인식하여 결국 백제와 고구려 간의 전쟁기사로 보는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俞元載, 〈魏虜의 백제침입기사〉, 《百濟研究》 23, 1992, 92~94쪽).

40) 末松保和, 《任那興亡史》(六興出版社, 1956), 110~113쪽.

41) 李基白, 〈百濟史上의 武寧王〉(《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1973), 68~69쪽.

관련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동성왕대에는 남제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래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또한 신라와는 공수동맹체제를 갖추어 고구려의 남침에 적극 대항하였다. 나제양국은 비유왕 7년(433; 신라 눌지왕 17)에 화친을 맺은 이래 고구려의 남진책에 공동으로 대응해 왔다. 나제간의 우호관계가 더욱 공고화되어 실질적인 군사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은 동성왕과 신라의 소지왕(479~499) 때의 일이다. 이 시기에 고구려가 신라를 침공한 것은 6회인 반면 백제는 1회에 불과하다.<sup>42)</sup> 백제는 彌秩夫(홍해)전투(481), 母山城(진천)전투(484), 薩水原(괴산 청천)전투(494)에서 신라를 구원하였고, 반면 稚壤城전투(495)에서는 신라로부터 구원을 받아 고구려군을 물리치기도 하였다. 동성왕 15년(493) 3월에는 왕의 요청으로 신라 눌지왕이 이별찬 比智의 딸을 보내어 혼인시켰다. 이 결혼동맹은 고구려의 남진을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백제 내부에 있어서는 기존의 왕비족세력과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하던 체제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라가 지증왕이 즉위하면서(500) 친고구려 노선으로 전환할 징후를 보이자<sup>43)</sup> 동성왕 23년 백제는 신라와의 경계선에 있는 전략적 요충인 炭峴에 성책을 설치하여 신라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끝으로 사비로의 천도를 계획하여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사비천도는 물론 성왕대에 단행되지만, 이미 동성왕대부터 준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44)</sup> 동성왕 12년(490)과 23년 세 차례에 걸쳐 사비지역에서 사냥을 실시하였는데, 이 때에 사비지역을 천도 후보지로 주목하였을 것이다.<sup>45)</sup>

---

한편 담로제의 실시 시기를 근초고왕대로 소급해서 보는 견해도 있으나(盧重國, 〈漢城時代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邊太燮博士華甲紀念 史學論叢》, 1985, 145~153쪽), 이곳에 자제종족을 파견하여 지방통치를 강화해 나간 시점은 웅진시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42) 이 시기에 신라와 고구려간의 전투는 소지왕 3년, 6년, 11년, 16년, 18년, 19년의 6회이고, 반면 백제와 고구려간의 전투는 동성왕 17년 뿐이다.

43) 梁起錫, 〈5~6세기 전반 新羅와 百濟의 관계〉(《新羅文化祭學術發表會 論文集》 15, 신라문화선양회, 1994), 86~88쪽.

44)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韓國史論》 4, 서울대 國史學科, 1978), 75쪽.

李基白, 앞의 글(1978), 19쪽.

45) 盧重國, 앞의 글, 93~94쪽.

특히 그 말년 무렵에 ‘水陸之衝’의 요처로<sup>46)</sup> 알려진 임천의 가림성을 축조하여 당시 실세귀족이었던 위사좌평 백가를 전보시킨 점도 이를 시사해 준다. 웅진에 세력기반을 가진 백가는 혹시 사비천도로 인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상실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반발하여 사비 西原에서 사냥을 하고 있던 동성왕을 살해하였다.<sup>47)</sup>

이와 같이 동성왕대에 추진된 일련의 왕권안정과 지배기반의 확대를 위한 시책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서 후대의 무령왕·성왕대로 이어지는 왕권 중심의 정치운영에 바탕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임류각의 건축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자주 일으켜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려는 시도는 국력의 소모와 민심의 이탈을 가져왔고, 수재와 가뭄 등의 거듭된 자연재해와 진흙대책의 불비는 농민의 생활을 피폐시켜 왕정의 인적·물적인 기반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집권 말기에는 사비천도를 계획하여 왕권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는 전기로 삼으려 하였으나 도리어 그의 측근이었던 신진세력 백가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신·구세력의 대립과 조정 역할을 통한 왕권의 안정이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신진세력을 중용하여 권력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점은 그의 정치적 한계라 할 수 있다.

## 2) 무령왕의 활동

### (1) 무령왕의 출자와 즉위과정

백제 성왕대(523~554)에 국가체제가 크게 정비되고 국력이 신장될 수 있었던 것은 전대의 동성왕과 무령왕대에 걸쳐 추진된 일련의 왕권 전제화 시책에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무령왕이 추진한 왕권강화책의 해명은 뒤이어 전개되는 사비시대 초기 성왕대 정치개혁의 성격을 밝혀주는 고리가 될 뿐 아니라 백제의 고대 중앙집권국가를 확립하는 과정을 해명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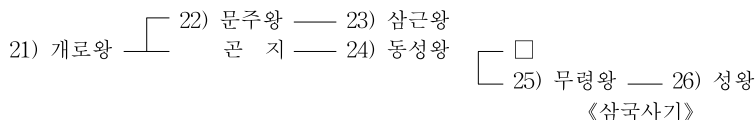
46)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년 7월.

47) 동성왕이 말년에 6좌평제의 개편과 22부제 실시와 관련된 정치개혁으로 인해 昔加에게 시해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45, 1978, 4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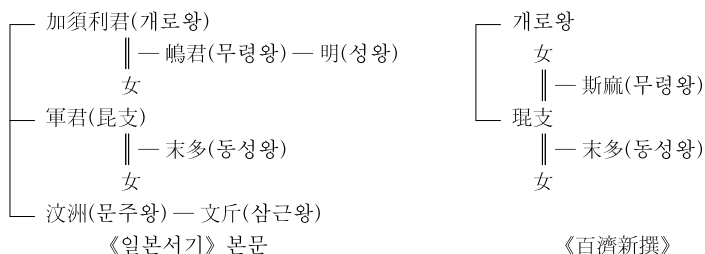
무령왕(501~523)은 동성왕과 함께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로서, 중흥의 영주인 성왕의 아버지이다. 그의 출생연대는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지석이나 그의 출생설화를 담고 있는 《일본서기》雄略天皇 5년조의 기사를 참고해 볼 때 개로왕 7년(461)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무령왕의 왕통계보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에 서로 다르게 서술되어 있어서 많은 이설과 혼란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대부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이는 웅진천도와 같은 어쩔 수 없는 비상시기를 거치면서 왕계 그 자체는 물론 그 관계 기록상의 혼란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사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웅진시대의 백제 왕통계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 웅진시대 백제왕위 세계



慶(개로왕) — 牟都(문주왕) — 牟太(동성왕) … 隆(무령왕)  
《양서》백제전



먼저 문주왕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와 다같이 개로왕의 아들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주왕이 역임했던 상좌평직에 왕제가 취임하는 것이 통례였고,<sup>48)</sup> 또한 《신찬성씨록》에 개로왕의 후예씨족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성함락으로 인해 개로왕의 직계가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48) 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歷史學報》11, 1959), 27쪽.

보면 양자의 관계는 《삼국사기》보다 오히려 《일본서기》의 기사에 따라<sup>49)</sup> 동북의 아우 즉 형제관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곧지는 《삼국사기》나 《일본서기》에 모두 개로왕의 동생 또는 문주왕의 동생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결국 삼자는 형제관계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무령왕의 왕통계보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제기되고 있으나, 〈武寧王陵誌石〉이 발견됨에 따라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무령왕의 계보는 여러 사서에 의거해 볼 때 주로 세 가지설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동성왕의 둘째 아들설이다. 이 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국내 사서에 서술되어 있는데, 웅진시대 백제의 왕통계보를 거의 부자상속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밝혔듯이 개로왕과 문주왕은 부자관계가 아니고 형제간이므로 이 서술은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설을 따를 경우 동성왕과 무령왕 양자간의 연령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무령왕릉 지석〉에 따르면 무령왕은 삼근왕이나 동성왕보다 나이가 더 많으며,<sup>50)</sup> 또 왕위에 오를 때는 이미 40세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동성왕과 무령왕은 부자관계로 설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설은 성립될 수 없다. 《梁書》백제전에도 웅진시대 백제왕계가 부자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는 중국인의 부자상속에 의한 왕위계승관에 따라 이 시기의 백제왕계를 일률적으로 기록한 데에 불과하다.<sup>51)</sup> 그러나 무령왕(隆)에 대해서는 즉위 사실만을 진하고 있을 뿐, 그의 왕통계보를 이례적으로 밝히지 않아서 왕위계승 과정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짐작하게 한다.<sup>52)</sup>

둘째, 개로왕의 아들설이다. 이는 《일본서기》雄略天皇 5년조와 武烈天皇 4년조의 割註 기사에 보이는 설이다. 웅락천황 5년조 기사에는 무령왕의 출생담을 기술하고 있는데, 개로왕을 그의 생부로, 곧지를 의부로 설정해 놓고

49) 《日本書紀》권 14, 雄略天皇 21년 3월의 割註.

50)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の 檢討〉(《韓國史研究》45, 1984), 13~14쪽.

51) 坂元義種, 《百濟史の研究》(塙書房, 1978), 183쪽.

52) 이를 무령왕 즉위의 정통성 문제와 관련시키는 견해가 있다(坂元義種, 위의 책, 183쪽). 즉 무령왕이 형이면서도 동성왕보다 늦게 즉위했다는 사실이 그의 왕위 즉위에 대한 정통성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 하였다.

53) 무령왕 이후 사비시대 왕계는 거의 무령왕의 후손들에 의해 왕위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무령왕은 사비시대 왕실의 중시조적 위치에 있게 된다. 따라서 직계

있다. 이러한 兄弟共妻說話는 너무 기괴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이 설화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무령왕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려는 배경에서 생성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53)</sup> 즉 무령왕이 실제 곤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개로왕을 생부로 내세워 개로왕의 혈통을 정통적으로 이어받았다는 것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개로왕의 아들설이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동성왕의 배다른 형이라는 설이다. 이는 《일본서기》무열천황 4년조의 본문기사에 인용되어 있는 《百濟新撰》에 서술되어 있는데, 《일본서기》용략천황 23년조의 동성왕 즉위 기사를 참고하여 그의 출생연령을 산출한 다음 〈무령왕릉 지식〉에 의해 밝혀진 무령왕의 나이와 비교하는 방법으로 《백제신찬》의 설을 따르고 있다.<sup>54)</sup> 즉 동성왕이 「幼年」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는 점과 그가 곤지의 다섯 아들 중에서 둘째라고 명기한 사실에서 그에게 형이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결국 무령왕이 동성왕의 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동성왕과 무령왕과의 관계를 해명하기 위하여 세 가지 설을 검토해 본 결과 무령왕의 계보는 결코 부자관계로 성립될 수 없으며,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다섯째 중의 첫째 아들이고 동성왕과는 배다른 형의 관계였음이 보다 설득력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무튼 무령왕은 동성왕을 살해한 백가의 난을 진압하고 40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그는 동성왕의 형이면서도 삼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아마 해구의 난을 토평한 진씨세력이 왜에 체류하고 있던 어린 동성왕을 옹립하여 실권을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무령왕을 기피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삼국사기》에는 무령왕의 즉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동성왕 23년(501) 11월 백가가 자객을 보내 사비지역에서 사냥중이던 왕을 찌르게 하였고, 왕은 12월에 죽어 결국 무령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이듬해 정월 백가는 加林城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무령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牛頭城에 이르러 한술 解明을 시켜 이를 토평하게 하였다.

여기서 백가가 왜 난을 일으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추측

---

가 단절된 개로왕과 직결시켜 무령왕의 정통성을 내세우려는 의도에서 이 설화가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李道學, 앞의 글, 1984, 14쪽).

54) 李道學, 위의 글, 14쪽.

해 볼 수 있다. 백가로 대표되는 반왕세력이 동성왕을 시해한 다음 의도한 대로 차기 왕을 옹립하려 하였다. 해구나 진로가 어린 삼근왕을 옹립하여 실권을 장악한 사례가 참고된다. 당시 40세의 연만한 나이의 무령왕은 백가세력에 의해 기피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무령왕과 그의 지지세력이 동성왕의 시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구실로 백가세력을 견제하고 나서자 형세가 불리해진 백가세력이 난을 일으켰으나<sup>55)</sup> 무령왕과 해명에 의해 평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령왕 즉위 초의 정변은 삼근왕대 해구의 난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 다만 무령왕은 해구에 의해서 옹립된 나약한 삼근왕과는 달리 진두지휘하면서 난을 진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점은 그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셈이 된다.<sup>56)</sup>

그리고 이 난은 왕권과 신·구세력간의 역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난을 일으킨 백가는 유력한 신진세력이었고, 반면 이를 평정한 해명은 남천해 온 구귀족세력이었다. 동성왕은 구귀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대거 기용한 금강유역의 신진세력에 의해 오히려 견제당하다가 시해되곤 한 것이다. 이 난의 평정을 계기로 한동안 정국운영에서 소외되어 있던 해씨세력과 같은 구귀족세력이 정치적 입지를 넓혀 나감으로써 비대해진 신진세력을 견제하게 되었다.

## (2) 무령왕의 왕권안정을 위한 시책

### 가. 지배세력의 개편과 중앙집권력 강화

무령왕은 불의의 천도와 이에 따른 정국의 혼란상을 직접 체험하면서 40세의 연만한 나이로 즉위하였다. 특히 동성왕의 무리한 전제권력 강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였다. 따라서 무령왕은 동성왕대 신진세력 중심의 정국운영에 대한 반성에서 왕권안정의 실마리를 찾았던 듯하다. 그는 동성왕이 말년에 비대해진 신진세력을 견제하려다가

55) 무령왕이 동성왕의 시해사건에 배후세력으로 역할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盧重國, 〈百濟 武寧王代の 集權力 強化와 經濟基盤의 擴大〉, 《百濟文化》 21, 1991, 12~13쪽).

56) 盧重國, 위의 글, 13쪽.

도리어 시해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거울삼아 세력이 증대된 신진세력의 권한을 일정하게 견제하면서 신·구세력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왕권의 안정을 추구해나갔을 것으로 여겨진다.

무령왕은 백가의 난을 평정한 것을 계기로 일단 왕권에 협조하는 일부 구귀족세력을 다시 등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백가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던 구귀족 출신의 한솔 해명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그런데 구귀족세력은 웅진시대 초기만큼 융성한 위세를 드러내지 못했던 듯하다. 사료에는 해씨세력인 해명과 목씨세력으로 木荔不麻甲背만<sup>57)</sup> 보이고 있을 뿐이다. 반면 신진세력은 즉위 초기에는 타격을 받았지만, 좌평 因友와 달솔 沙烏 등이 무령왕 후반기에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58)</sup> 구귀족과 함께 일정한 세력을 유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위 초에는 신·구세력보다도 「骨族」으로 지칭되는<sup>59)</sup> 왕족이 무령왕의 권력기반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sup>60)</sup> 왕족의 중용은 귀족들의 세력신장을 견제하고 친정체제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위 초에 왕족으로 보이는 달솔 優永이<sup>61)</sup> 고구려를 공격한 일이 있었고, 또 지방통치를 위해 설치한 담로에<sup>62)</sup> 「子弟宗族」으로 지칭되는 왕족들로 임명되었던 점이 참고된다. 동성왕대에는 비대해진 신진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백가와 같은 신진세력을 지방의 거점지역에 전보시킨 것과는 달리 무령왕대에는 22개의 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담로제는 왕의 혈연집단에 의한 지방통치 방식으로, 중앙의 왕권 확립과 각지에 산재되어 있던 독립적인 재지세력을 중앙의 통치질서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었다. 이러한 담로제의 실시는 지방에서의 묘제 변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5세기 후반의 재지수장묘로 알려진 나주 반남면 신촌리 9호분과<sup>63)</sup> 중앙의 묘제인 나주 반남면 흥덕리의 석실분을 감

57)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10년 5월.

58)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무령왕 23년 2월.

59) 《日本書紀》권 16, 武烈天皇 7년 4월.

60) 盧重國, 앞의 글(1991), 17~18쪽.

61) 優氏를 왕족인 優台-沸流系로 보고 있다(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 《韓國學報》3, 1976, 137쪽).

62) 《梁書》권 54, 列傳 48, 百濟.

63) 穴澤味光·馬目順一, 〈羅州潘南面古墳群〉(《古代學研究》70, 1973), 27~29쪽.



안해 볼 때<sup>64)</sup> 영산강유역에서의 지배세력의 묘제가 6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전통적인 대형의 전용옹관묘에서 중앙의 석실분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령왕이 담로제를 실시함으로써 점차 재지세력의 기반을 해체하면서 중앙의 집권력을 강화해 나갔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고 관등급인 좌평제를 개편하여 확대된 신·구세력을 통제해 나갔다. 《삼국사기》에는 무령왕대부터 직책이 없는 좌평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일본서기》에서는 상좌평·중좌평·하좌평·대좌평 등으로 분화된 좌평의 명칭이 보인다.<sup>65)</sup> 이는 이 시기에 좌평제를 포함한 어떤 정치조직의 변화가 있었음을<sup>66)</sup> 시사해 준다. 그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동성왕대 이후 적극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하고 있던 신진세력들로 인해 지배층의 폭이 확대되자 국왕을 정점으로 이들을 서열화하고, 또한 정무를 분담하기 위해 기존의 좌평제를 개편한 것으로 보인다. 의자왕이 무려 41명이나 되는 왕자들에 대하여 좌평직과 식읍을 준 사례로 보아<sup>67)</sup> 백제 말기에는 좌평이 숫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도 이전 시기와 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좌평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즉 최고 합좌회의인 좌평회의에 참여하는 최고 신분으로서의 좌평신분을 지칭하는 경우와 행정관료로서의 기능을 가진 좌평이다. 후자의 경우 신라의 大等이 일정한 정무를 담당했을 경우 上大等, 典大等, 使大等, 仕大等 등으로 보임되는 것과 같이<sup>68)</sup> 위의 좌평신분 중에서 일정한 정무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무령왕대에 개편된 좌평제는 귀족세력들을 국왕 중심으로 서열화하기 위한 것이었고, 사비시대 좌평제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한편 무령왕은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유민들을 귀농시키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왕정의 물적인 기반을 강화하여 나갔다. 무령왕 10년(510)에 실시한 제

64) 姜仁求, 《三國時代圓丘墓研究》(영남대출판부, 1984), 51~52쪽.

65) 《日本書紀》에 上·中·下佐平이 欽明天皇 4년 12월(543)에 보이고 있고, 敏達天皇 12년 10월(583)에 「太佐平」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다.

66) 동성왕 말년에 좌평제 개편을 포함한 정치개혁이 있었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李鍾旭, 앞의 글 참조).

67)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7년 정월.

68) 李基白, 〈上大等考〉(《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96쪽.

盧鏞弼, 〈新羅眞興王代 大等の 分化和 그 政治的 背景〉(《歷史學報》, 1990), 11쪽.

방의 축조와 정비 및 유민대책이 그것이다. 이는 백제의 경제적 터전이었던 한강유역의 상실 이후, 수리시설의 확충을 통해 금강유역권과 호남평야를 개발함으로써 경제력 기반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그리고 천도 이후 야기된 정치적 혼란과 거듭된 수·한재와 역질로 인해 민이 유망하거나 도적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동성왕대에 가장 극심하였고, 무령왕대에 이르러서도 계속 이어졌다.<sup>69)</sup> 유망민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진휼책이 마련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 유민들은 국가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조세수취나 노동력 자원을 그만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무령왕은 귀농정책을 추진하여 유망민들을 강제로 출신지역에 정착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백제를 이탈하여 한동안 가야지역에 거주했던 백제인들을 쇄환하여 이들을 귀농시킨 사례가<sup>70)</sup> 참모된다. 이러한 유민의 귀농 조치는 곧 농업노동력의 확보와<sup>71)</sup> 아울러 조세 및 노동력 수취기반의 확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천도 이후 야기된 사회적 혼란이 이 때에 이르러 거의 안정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 나. 대외관계의 변화

무령왕대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양상은 고구려에 대해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웅진 천도 후 백제는 내부의 정정불안으로 말미암아 고구려에 대해 한동안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였다. 동성왕대에 이르러 기존의 나제동맹관계를 군사동맹과 결혼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고구려의 남진에 대해 신라와 공동 대응하였다. 이로써 고구려의 남진을 충북 청천(薩水原)－진천(母山城)－경북 문경(犬牙城)선에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었다.<sup>72)</sup> 이 시기에는 고구려가 신라를 주된 공격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므로, 백제의 경우 동성왕 17년(495) 雉壤城이 침공받은 사례를 제외하고는 고구려와는 거의 소강상태를 이루었다.

69) 무령왕대의 자연재해는 2년 춘(역질), 6년 춘(역질)과 5월(가뭄·기근), 21년 5월(수재)와 8월(기근), 22년 10월(지진)에 보이고 있다.

70) 《日本書紀》권 17, 繼體天皇 3년 2월.

71) 盧重國, 앞의 책, 164쪽.

72) 金秉柱, 〈羅濟同盟에 관한 研究〉(《韓國史研究》46, 1984), 44쪽.

鄭雲龍, 〈5세기 高句麗勢力圈의 南韓〉(《史叢》35, 1989), 15쪽.

그러나 무령왕은 즉위 초의 정변을 수습한 후 곧바로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강화하였다. 백제는 남천 이후 고구려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입장에서 벗어나 공격적인 자세로 전환하였던 것이다. 무령왕 즉위년에 달솔(優永)이 거느린 5천의 백제군이 고구려의 水谷城을 선제 공격하였으며, 이듬해에도 다시 고구려의 변경을 공략하였다. 백제의 이러한 자세 변화는 백가의 난을 평정한 이후 전쟁을 통해 귀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sup>73)</sup>

백제의 공세에 대해 고구려는 주된 공격의 목표를 바꿔 백제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고구려는 부용세력인 말갈까지 동원하여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대인 馬首柵과 高木城·橫岳·加弗城·圓山郷 및 葦川에 침입하여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백제는 고구려와의 전투에서 거의 고구려군을 격퇴하였다. 백제가 양에 보낸 국서에서 “누차 고구려를 공파하였고 … 다시 강국이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은<sup>74)</sup>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축성이나 설책 등 방어시설을 확충하여<sup>75)</sup>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기도 하였다. 고구려와 전투에서의 승리는 무령왕 자신의 권위와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양군이 교전을 벌인 지점은 연천(고목성), 북한산(횡악) 등이었는데, 이는 이때에 이르러 백제가 이전에 상실한 한강유역의 일부 지역을 수복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sup>76)</sup> 그런데 백제와 고구려 양군이 교전할 때 신라의 지원이 없었던 점이 주목된다. 나제동맹에 따라 신라와 백제 양국 중 어느 일방이

73) 의자왕이 즉위 초의 정변을 수습한 후 귀족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미후성 등 40여 성을 빼앗은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74) 《梁書》권 54, 列傳 48, 百濟.

75) 무령왕대에 쌓은 방어시설로 高木城, 長嶺城, 雙峴城 등이 있다.

76) 《三國史記》무령왕조에 여제 양군이 교전한 지점이 한강유역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그 사실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馬首柵(연천부근), 高木城(연천), 橫岳(북한산), 水谷城(신계) 등은 한강유역에 있는 지명들이다. 이를 단지 지명이동설 입장에서 그 실체를 부정하거나(今西龍,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1934, 126쪽), 또는 실지회복의 염원에서 사비시대의 백제왕실이 한성시대의 지명을 의도적으로 서술한 데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李道學, 앞의 글, 1984, 25쪽),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한성이 함락당한 후 문주가 원병을 거느리고 한성으로 향할 때 이미 고구려군은 퇴각한 상태였다는 점, 전술적으로 경기병을 동원해 한강유역에서 단기전을 치를 수 있다는 점, 말갈과 관련된 한성의 동북지역으로서 동성왕대부터 한강유역의 재진출이 시도되었다는 점(俞元載,

공격을 받아 불리한 전황이 생길 경우 다른 한쪽이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이 동성왕대까지의 관례였다. 기존의 나제동맹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신라는 지증왕이 즉위한 후 적대적이던 고구려와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는 백제와 고구려와의 대결구도에도 직접 개입을 자제한 채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여러 제도를 정비해 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sup>77)</sup>

한편 무령왕은 적극적으로 가야지역에 진출하여 백제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갔다. 가야지역은 근초고왕의 남부지역에 대한 정벌 이래 백제와 부용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천 이후 백제의 정정불안으로 백제세력권에서 점차 이탈하는 현상을 보였다. 가야왕 荷知가 남제로부터 「輔國將軍 本國王」으로 책봉을 받은 사례가(479)<sup>78)</sup> 참고된다. 그러나 고구려에 의해 한강유역을 빼앗긴 백제는 웅진천도 이후 이에 대체할 만한 새로운 농업생산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백제는 왕권이 안정된 무령왕대부터 적극적인 남방의 경영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서기》 계체천황 6년(512)과 7년(513)의 기사가 참고된다. 무령왕 12년(512)에 백제가 왜로부터 上哆唎・下哆唎・娑陀・牟婁의 4현을 할양받았으며, 이듬해에는 己汶(남원·임실)・帶沙(하동)지역을 사여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들은 다소 윤색이나 과장된 면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백제가 무령왕대에 남원·임실에서부터 하동에 이르는 섬진강유역 일대를 지배하고 귀속시켰음을 보여주고 있다.<sup>79)</sup> 무령왕대의 사실을 전하고 있는 《梁職貢圖》의 百濟國使條에는 백제의 부용국으로 “叛波・卓・多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를 열거하고 있는데,<sup>80)</sup> 신라(斯羅) 등을 제외한 가야제국이 백제의 세력권 아래 놓여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武寧王代之對外關係〉, 《百濟 武寧王陵》, 公州大 百濟文化研究所, 1991, 54~55쪽), 《梁書》百濟傳에 “고구려를 공파하여…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공언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성·무령왕대에 한강유역에 재진출을 시도해 일부 영토를 수복하였을 개연성은 높다.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형태와 《三國史記》地理志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77) 梁起錫, 앞의 책(1994) 참조.

78) 《南齊書》권 58, 列傳 39, 東南夷, 加羅國 建元 원년.

79) 延敏洙, 〈六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新羅文化》 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119쪽.

80) 여기에 보이는 소국은 叛波가 고령의 대가야, 卓은 창원, 多羅는 합천, 前羅는 함

다음으로 대중관계는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천도 직후 백제는 고구려의 항로 차단으로 인해 중국과의 교류가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문주왕 2년과 동성왕 6년에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동성왕대부터 남제와 활발한 교섭을 전개하였는데, 의례적인 교섭 이외에 책봉이나 관작 청구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무령왕대에 들어와서는 남제의 뒤를 이은 양과 교류하였다. 무령왕 12년에 양과 처음으로 교류한 이래 동왕 21년 11월에 다시 양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 때 보낸 국서에서 백제가 천도 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고구려를 누차 공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81)</sup> 이에 대해 양은 12월에 무령왕을 ‘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으로 책봉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무령왕릉 지석>에서도 확인된다. 백제가 중국왕조로부터 책봉을 통해 국제적인 지위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왕권의 권위와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무령왕대에 양과의 교섭을 통해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공언한 일이나 영동대장군으로 책봉된 사실은, 백제가 대내적으로 천도 후 정국불안을 극복하여 왕권안정을 되찾았고, 대외적으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났음을 천명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梁起錫〉

### 3. 사비천도와 지배체제의 재편

#### 1) 성왕의 사비천도

성왕은 재위 16년(538)에 사비로 천도하였는데, “사비(일명 소부리)로 수도를 옮겼다. 국호를 남부여라고 하였다”는 간략한 기록만이 《三國史記》에 전해지고 있다. 이 기록만으로는 성왕이 사비로 천도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

---

안, 止迷와 麻連은 불명, 上己文은 임실·남원, 斯羅는 신라, 下枕羅는 제주도  
에 각각 비정되고 있으나(延敏洙, 위의 글, 113쪽 및 金泰植, 앞의 글 참조),  
많은 이견이 있다.

81) 《梁書》 권 54, 列傳 48, 百濟.

수가 없다. 정작 궁금한 것은 성왕이 사비로 천도한 이유와 배경, 그로 말미암은 정치세력간의 변동 등이다. 이에 대한 종래의 견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백제는 동성왕·무령왕대를 거치면서 웅진천도 이후의 불안한 사회상황을 극복하여 어느 정도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이를 보다 확충시키기 위하여 협착한 웅진을 벗어나 사비로 천도하였다는 것이다.<sup>1)</sup> 둘째, 웅진시대에 연이어 일어난 왕의 피살과 반란 등의 내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sup>2)</sup> 대세로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 하겠으나 단지 성왕의 사비천도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을 따름이다.<sup>3)</sup>

여기서는 성왕이 사비로 천도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으며, 개혁정치를 통한 국왕의 권력강화가 어떻게 가능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웅진천도 이후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귀족세력들이 어떻게 국왕의 세력속에 편제되어질 수 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비천도는 동성왕 때부터 시도되었다고 한다. 동성왕은 여러 차례 사비로 사냥을 나갔다. 그가 여러 차례 전령지로서 사비를 택했던 것은 그의 사비천도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4)</sup> 이 때의 사비천도는 결국 동성왕이 苾加에 의해서 살해됨으로써 좌절되고 말았다. 사비천도가 일단 좌절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동성왕의 피살에서 기인되었지만, 보다 더 깊은 이유는 다른 방향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천도와 같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백가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국왕을 살해하는 단순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었다는 것은 얼핏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웅진시대 귀족세력의 동향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한강유역에 세력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解氏와 眞氏는 웅진 부근의 토착세력이었던 燕氏와 苾氏의 세력과 각각 결탁하여 그 세력을 유지하였다.<sup>5)</sup>

1) 李丙燾, 《韓國史》古代篇(震檀學會, 1959), 436쪽.

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下)〉(《韓國學報》3, 1976), 142쪽.

3) 성왕의 사비천도를 본격적으로 다룬 논고도 있다. 이 글에는 성왕의 사비천도에 관련된 이모저모가 잘 정리되어 있다(梁起錫, 〈百濟 聖王代의 政治改革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4, 1991).

4)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韓國史論》4, 서울大 國史學科, 1978), 93~94쪽.

5) 이에 대한 자세한 서술은 金周成, 《百濟泗泚時代政治史研究》(全南大 博士學位論文, 1990), 34~42쪽 참조.

이들 세력이 각각 대립하면서 동성왕의 사비천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면, 沙氏와 木氏세력은 사비천도에 적극 협력하고 있었던 세력으로 파악된다. 성왕의 사비천도 이후 사씨와 목씨가 좌평을 모두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즉 사씨와 목씨의 세력이 떨쳤던 것은 이들 세력이 사비천도에 적극 협조적이었던 까닭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다.<sup>6)</sup>

동성왕은 이들 귀족들의 세력균형 위에서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력균형 위에서의 안정 추구는 담력이 세고 무예가 뛰어난 동성왕에게는<sup>7)</sup> 불만스러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동성왕은 이들 귀족세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사비천도를 적극 추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동성왕의 사비천도의 추진은 이들 양대세력으로부터 반발을 초래하였을 것이며, 이들은 동성왕을 포악한 국왕으로 인식하여 제거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이다.<sup>8)</sup>

이러한 가운데 무령왕은 즉위하였다. 무령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대단히 급변하는 사회상황 속에서 성장하였다.<sup>9)</sup> 특히 동성왕대에 20~30대를 보낸 그는 백제의 정치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통하였을 것이며, 동성왕의 무리한 전제권력 강화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였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의 이러한 체험은 즉위 이후 그의 통치방식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무령왕은 먼저 사회안정을 추구했다. 제방을 튼튼히 하고 내외의 유식자를 다시 귀농시켰다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은 앞에서 살펴본 웅진시대의 귀족들의 정치세력을 인정한 기반 위에서 출발한 무령왕의 정치적인 역량에서 기인된 것이다.

무령왕이 다져놓은 사회적인 안정 위에서 성왕이 즉위하였다. 성왕은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 처리에 결단성이 있었다고 한다. 결단성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령왕 때의 왕권강화처럼 귀족들의 세력균형 위에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성왕의 즉위 이후 국왕과 귀족세력과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6) 이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金周成, 위의 글, 40~42쪽 참조.

7) “동성왕은 …담력이 다른 사람보다 컸으며 활을 잘 쏘아 백발백중이었다”(《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동성왕 즉위년).

8) 《百濟新撰》에는 末多가 무도하여 백성에서 포악하게 대하니 국민이 함께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다(《日本書紀》권 16, 武烈天皇 4년).

9) 李基白, 〈百濟史上的 武寧王〉(《武寧王陵》, 文化財管理局, 1973), 64쪽.

이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는 직접적인 사료는 없으나, 성왕의 계율 강조와 예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추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성왕 4년(526) 백제 율종의 시조인 謙益이 인도에서 5부율을 가지고 귀국하였다. 이때에 성왕은 국내의 고승 28인을 초청하여 율부 72권을 번역하도록 하였으며, 曇旭·惠仁 두 사람이 저술한 律疏 36권에 자신이 직접 毘曇新律序를 썼다.<sup>10)</sup> 뿐만 아니라 성왕은 양으로부터 講禮博士 陸瑯를 초청하였다.<sup>11)</sup> 성왕은 불교의 계율과 유학의 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였는데, 이는 국왕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귀족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동성왕대와 마찬가지로 국왕과 대립되었던 귀족세력으로서 해씨와 연씨, 진씨와 백씨를 들 수 있다. 성왕은 이들 귀족세력으로부터 벗어나 강력한 전체 권력을 형성하고자 했다. 동성왕이 사씨와 목씨세력과 결탁하여 사비천도를 기도했었던 것처럼, 성왕 역시 이들 귀족세력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사비천도를 단행하였다고 생각된다.

또 성왕은 사비천도와 동시에 국호를 남부여로 변경하였다. 성왕이 사비천도와 함께 국호를 변경할 수 있었던 것은 비단 국내 귀족세력의 제압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대외관계 역시 이를 잘 도와주고 있었다. 어쩌면 사비천도가 동성왕 이후 성왕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는 것은 대외관계의 비중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웅진으로 천도하게끔 백제를 곤경에 빠뜨렸던 고구려는 안으로는 細群派와 추群派로 분열되어 심각한 정쟁이 계속되었으며, 밖으로는 신흥하고 있었던 돌궐족의 침입에 대비하여야만 했다.<sup>12)</sup> 또 성왕의 가야지역으로의 진출도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5

10) 李能和, 《朝鮮佛教通史》上(新文館, 1918), 33~34쪽.

11) 陸瑯는 어려서부터 崔靈恩의 三禮義宗을 익혔는데, 梁나라 때에 백제국이 表를 올려 講禮博士를 구하자 詔를 내려 瑯로 하여금 가게 했다(《陳書》권 33, 列傳 27, 儒林 鄭灼). 周一良은 “육후는 吳郡陸氏로 五經博士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가 싶고, 다만 어느 때에 백제에 왔었는가는 고찰할 수 없다. 육후에 관한 사적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사후의 자취는 살필 수 있다”고 했다(〈百濟와 中國 南朝와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考察〉, 《百濟史의 比較研究》, 忠南大 百濟研究所, 1993, 226쪽).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위 사료를 《梁書》백제전의 中大通 6년(534)과 大同 7년(541) 기사와 《三國史記》권 26, 百濟本紀 4, 성왕 19년(541)의 기사와 연결시키고 있다. 즉 육후의 백제파견 시기를 성왕대로 파악하고 있다(李基東,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69, 1990, 12쪽 및 梁起錫, 앞의 글, 1991, 83쪽 참고).



세기 후반에 형성된 대가야연맹은 백제의 곤경을 틈타 서진하여 한때 소백산맥을 넘어 阿莫山城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었다.<sup>13)</sup> 이에 대해 백제는 6세기 초반에 己汶·帶沙(하동)를 확보하였다. 530년대에는 진주를 넘어 마침내 安羅(함안)에 군사를 주둔시키기에 이르렀다.<sup>14)</sup> 성공적인 가야진출은 성왕의 국내에서의 권위를 신장시켰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국내의 정세의 변화는 성왕으로 하여금 그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름의 개혁정치를 추구하게끔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 2) 정치체제의 개편

### (1) 5방제의 실시

성왕은 사비천도 이후 여러 가지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중앙의 행정관부인 22부사의 정립, 지방통치조직인 5方制의 실시, 16관등제의 확립 등이 그것이다. 먼저 5방제를 살펴보겠다.

웅진시대까지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擔魯制였다. 담로제는 거점지배 방식으로 토착세력의 일반민에 대한 지배권이 대단히 컸었던 지배방식이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담로체제하에서는 토착세력의 권한을 중앙의 통치권 속에 아직 완전히 편제 혹은 흡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sup>15)</sup>

사비천도 이후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은 담로체제에서 5방조직으로 바뀌게 되었다.<sup>16)</sup> 5방은 중앙인 古沙城, 동방인 得安城, 남방인 久知下城,<sup>17)</sup> 서방인 刀先城, 북방인 熊津城으로, 각 방에는 方領 1인·方佐 2인이 파견되어 있었다. 각 방은 6·7 내지 10여 개의 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12) 盧泰敦, 〈高句麗의 漢水流域 喪失의 原因에 대하여〉(《韓國史研究》 13, 1976).

13) 金泰植, 〈後期 加耶聯盟의 成長과 衰退〉(《韓國古代史論》, 1988), 102쪽.

14) 田中俊明, 〈王都로서의 泗沘城에 대한 豫備의 考察〉(《百濟研究》 21, 1990), 164쪽.

15) 金周成, 〈百濟 地方統治組織의 變化와 地方社會의 再編〉(《國史館論叢》 35, 1993), 30~41쪽.

16) 노중국은 사비천도 이후 왕정의 물질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집권 강화와 무령왕대에 새로 편입된 己汶·帶沙지역에 군령·성주의 설치, 백제가 망할 때의 5부-37군-200성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5방조직은 사비천도 이후에 실시되었음을 논증하였다(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247~250쪽).

17) 《翰苑》에는 卞城으로 되어 있다.

5방조직의 역동적인 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6세기에 들어와 빈번하게 이루어진 병력동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세기 이래 삼국은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다. 이에 병력을 어떻게 신속하게 동원할 것인가가 전쟁의 승패에 중요한 관건이었으므로, 병력동원 방식은 곧 중앙이 어떻게 지방사회를 장악하고 있었는가를 선명히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빈번히 나오는 병력동원과 지휘관의 관등 사이에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견해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sup>18)</sup> 즉 좌평이 거느린 병력은 대략 3만~4만 명이었는데 비하여, 達率 혹은 將軍·左將이 거느린 병력은 대략 7·8천~1만 명 정도였다. 다시 말하면 각 방의 장관인 달솔 방령은 대략 1만 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출동하였으며, 중앙의 좌평은 각 방의 병력을 수합하여 3~4만 명을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추구하기 위하여 방령이 거느리고 전투에 참가했었던 7·8천~1만 명의 병력은 어떻게 동원되었을까를 살펴보자.

이에 각 방에 소속된 군에서 거느리고 있었던 병력이 주목된다. 각 군에는 대략 700·800~1,2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sup>19)</sup> 그렇다면 각 방에서 동원된 1만여 명의 병력은 각 방에 소속된 6·7~10여 개의 군에서 동원된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방령이 각 군에서 동원된 병력을 거느리고 전투에 출동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의 동원명령은 각 방을 통해서 각 군에 하달되지만, 병력동원은 역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명령의 하달과 시행은 단지 병력동원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면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에서는 지방통치조직과 군사조직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담로제하에서는 지방토착세력이 일반민을 직접 장악하고 있었다면, 5방 조직하에서는 지방토착세력이 일반민에 대한 권한의 상당한 부분을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담로제에서 5방제도로의 개편은 단순한 제도의 변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방사회의 재편에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18) 金周成, 앞의 글(1993), 41~43쪽.

19) 金周成, 위의 글, 41~45쪽.

점은 《翰苑》에 인용된 括地志에 어느 정도 드러난다. 즉 “城 가운데 戶口의 수가 많은 경우는 1,000인이고, 적은 경우는 7~800인이며 城 가운데 많은 경우는 500家”라 하였는데, 戶와 家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전반부의 城과 후반부의 城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호를 구성하는 단위가 人과 家의 둘로 나뉜 이유 등 의문점이 상당히 많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료는 각 성의 가구수가 일정하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5방제하에서 병력을 동원할 때 각급 지방행정단위 상호간에 큰 차이가 없었던 점도 전정호구에 의한 개편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군단위에서는 대략 700~800 혹은 1,200명의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으며, 방단위에서는 대략 1만여 명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 이와 같이 방과 방, 군과 군 사이의 병력동원 규모에 차이가 극소화되고 있었던 것은 각급 행정단위의 호구전정의 균질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담로제하에서는 각 담로마다 각각 그 규모에 있어서 대단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담로의 전신은 일반적으로 삼한시대의 소국에서 유래된다고 한다. 삼한 소국 중 큰 것은 1만여 가가 넘었으나, 작은 것은 수천 가에 이르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각 담로의 규모는 대단한 차이가 있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담로제하에서는 전정호구의 균질화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 (2) 22부사의 설치

22部司에 대한 기록은 중국측 사서인 《北史》·《周書》·《翰苑》 등에 실려 있다. 각 기록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기록이 《주서》라고 한다.<sup>20)</sup>

각기 部司가 있어 많은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 內官에는 前內部·穀部·肉部·內掠部·外掠部·馬部·刀部·功德部·藥部·木部·法部·後宮部가 있으며, 外官에는 司軍部·司徒部·司空部·司寇部·點口部·客部·外舍部·綱部·日官部·都市部가 있다(《周書》 권 49, 列傳 41, 異域 上, 百濟).

20) 李丙燾, 앞의 책, 543~544쪽.

鬼頭清明, 〈日本律令官制の成立と百濟の官制〉(《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上, 1978).

위의 기록에 의하면 22부사의 명칭만 나열되어 있을 뿐 각 부사의 설치시기·임무·부사의 장과 소속 관리의 수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사료만 가지고서는 22부사의 자세한 고찰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2부사의 설치를 전후한 당시 백제의 사회상황을 고려해 볼 때 22부사의 성격이 어느 정도나마 희미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22부사의 설치 시기를 알아보면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자. 22부사에 관해 언급한 《주서》·《북사》·《한원》 등은 7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사서들이다. 이 사서들에는 22부사와 함께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인 5방제도가 실려 있다. 5방의 하나인 북방성이 웅진성으로 나와 있는 점으로 보아 대략적으로 이 사서들은 사비천도 이후의 백제사회를 설명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22부사 역시 사비시대에 들어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2부사는 내관 12부·외관 10부라는 대단히 정비된 행정조직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부사의 숫자가 많았던 점으로 보아 일시에 정비된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렵다. 대체로 22부사는 사비천도 이후 성왕대에 완전히 정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면 성왕이 22부사를 설치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 22부사의 長吏는 3년마다 교대되었다.<sup>21)</sup> 그렇다면 22부사 소속 관리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더욱이 22부사로 분화되어 있어 개인에게 정치권력이 집중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22부사의 설치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왕의 전제적인 권력은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2)</sup> 성왕은 사비천도를 완료하고 16관등제도를 확립, 5부·5방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다. 22부사의 정비 역시 성왕의 왕권강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22부사 중 내관과 외관의 임무는 뚜렷이 구분되었다. 내관의 대부분은 궁

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1980).

盧重國, 앞의 책.

俞元載, 〈周書百濟傳研究〉(《百濟研究》19, 1988).

21) 長吏는 3년마다 교대되었다(《北史》권 94, 列傳, 百濟傳). 한편 《隋書》권 81, 東夷傳, 百濟條에는 “長吏는 3년마다 교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22) 李鍾旭, 〈百濟의 佐平〉(《震檀學報》45, 1978), 50쪽.

중의 일상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외관은 군사·재정·교육·외교 등 국가의 주요한 행정업무를 관장하였다.<sup>23)</sup> 임무상으로 보았을 때 22부사는 행정통치에 매우 긴요한 기구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이 점은 22부사의 기능에 대한 지극히 막연한 지적일 뿐 구체적인 설명은 되지 못한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22부사의 관리들에는 어떠한 인물이 임명되었을까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22부사에 임명된 사람들을 통하여 22부사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먼저 22부사의 장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22부사의 장에는 좌평이 임명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16관등 중 최고의 관등인 좌평이 3년마다 교대되는 22부사의 장에 임명되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sup>24)</sup> 여기에서 제2관등인 달솔이 주목된다. 22부사는 중앙관부였다. 중앙관부의 장이라면 지방관과 거의 비슷한 관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백제의 5부·5방의 장관은 달솔이 역임하였는데, 달솔의 정원은 30명이었다. 5부·5방의 장관에 임명된 10명의 달솔을 제외한 20여 명의 달솔이 22부사의 장에 임명되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추측은 다소 무리가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22부사의 지위가 모두 동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임무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외관이 내관보다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따라서 내관의 장의 관등보다는 외관의 장의 관등이 보다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관의 장에 달솔 관등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었다면, 내관의 장에는 그보다 낮은 관등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아마 내관의 장에는 3품 이하의 率系 관등내에서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3) 다음은 22부사의 임무에 대해 부분적으로 추론한 글들이다.

武田幸男, 앞의 글.

鬼頭清明, 앞의 글.

盧重國, 〈泗泚時代 百濟 支配體制의 變遷〉(《韓沽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梁起錫, 앞의 글, 85쪽.

24) 이 글에서는 《北史》百濟傳에 보이는 長吏를 22부사의 장과 22부사에 근무하는 관리로 해석하고자 한다(申濤植, 《百濟史》, 梨大出版部, 1992, 98쪽). 신라에서도 최고관부였다고 할 수 있는 집사부의 장이 원칙적으로 3년마다 새로이 임명되었던 것이다(李基白, 〈新羅 執事部の 成立〉,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159쪽).

22부사의 장에 술계 관등을 가진 인물이 임명되었다면 실무를 담당했던 관리들로는 어떠한 인물들이 임명되었을까. 《周書》의 “각기 部司가 있어 많은 일을 나누어 맡고 있다”라는 구절로 보아, 16관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은 각각은 22부사의 어느 한 부사에 소속되어 실무를 나누어 맡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22부사에 소속된 관리들은 누구나 관등을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술계 관등을 지닌 사람들은 冠을 銀花로 장식하였으며, 德系 관등 이하를 지닌 사람들은 帶色으로 구분하였다고 한다.<sup>25)</sup> 술계 관등과 덕계 관등은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틀린 셈이다. 이들 사이에 이러한 구분이 필요할 만큼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22부사의 장을 역임한 술계 관등을 지닌 사람들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하였던 덕계 관등을 지닌 사람들을 지휘하였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덕계 관등을 각각 구분해 놓은 이유는 혹시 그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실무행정의 직급을 표시해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22부사에 소속된 관리들의 중요한 기능은 국왕의 통치권 행사를 보좌하는 것이었다고 짐작된다. 국왕의 통치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본다면 22부사의 기능을 좀더 명확히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여기에서 22부사 중 前內部가 주목된다. 전내부는 그 명칭상으로 보아도 신라의 내성과 같은 국왕근시 임무를 맡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임무 외에도 전내부에는 왕명출납의 임무가 있었다고 추측된다. 왕명출납의 대상이 되었던 기구는 내관 12부에만 한정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정작 왕명출납의 중요한 대상은 외관 10부였다고 짐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성왕대에 이르러서는 전내부가 내관 12부뿐만이 아니라 외관 10부까지 장악하였던 것이 아니었을까. 즉 성왕대의 전내부는 분화된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이 아니라 국왕과 행정을 분장하는 다른 부사와의 중간에 위치하여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통제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sup>26)</sup> 이

25) 《周書》 권 49, 異域傳, 百濟.

26) 鬼頭清明(앞의 글, 197쪽)은 22부사에서 행정상 정책결정기구를 명확하게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단순히 전내부가 내관에 속해 있었다는 사실만을 강조해서 신라의 내성과 같은 기구로 파악하였기 때문이다. 또 한편으로 武田幸男(앞의 글, 60~61쪽)은 “22부사 중 좌평이 장관을 역임하는 부사가 생

렇게 생각해 보면 전내부는 국왕의 직속기관으로서의 신라의 내성과 함께 집사부의 기능을 겸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집사부는 기밀사무를 맡았으며 국왕의 직속기관으로서의 구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sup>27)</sup>

그렇다면 국왕의 직속기관이었다고 추측되는 전내부에는 어떠한 사람이 그 장에 임명되었을까에 대하여 다음 사료는 시사적이라고 생각된다.

奈率 馬武는 성왕의 股肱之臣이다. 왕의 명령을 받아 아래로 전달함이 왕의 마음에 극히 들어 王佐가 되었다(《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11년 2월).

馬武는 국왕의 측근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와 같이 국왕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전내부의 장에 임명되지 않았을까 여겨진다. 그런데 마무의 관등은 나솔이었다. 나솔은 백제의 16관등 중 6관등에 해당한다. 6관등이었던 나솔 마무가 백제의 최고 관부였다고 추측되는 전내부의 장에 임명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어색스러운 점이 있다. 그러나 전내부의 장에 6관등이었던 나솔 정도의 낮은 관등에 있었던 사람이 임명되었다는 사실이 전내부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국왕의 근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전내부의 장을 국왕이 직접 장악할 수 없다면 국왕의 행정통치상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국왕의 근시기구로서의 권위에 손상을 가져올 정도로 전내부의 장을 더 낮은 관등에서 임명할 수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전내부의 장에 임명될 수 있었던 관등으로는 대체로 2품 달솔에서부터 6품 나솔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 중에서도 3품인 은솔과 4품인 덕솔이 가장 유력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신라에서 집사부의 장관인 中侍에 17관등 중 4관등인 波珍浪이 많이 임명되었던 점을<sup>28)</sup> 고려해 볼 때 그러하다. 한편으로 신라의 집사부는 귀족들의 화백회의와 대비될 수 있으며, 중시는 신라 전제왕권의

---

기면서 22부사 사이에는 상호 종속적인 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이 견해 역시 22부사와 좌평의 관계가 시간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던 점을 무시하는 약점이 있다고 하겠다. 성왕이 22부사를 설치하였다면 충분히 22부사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성왕 당시에 22부사를 어떻게 장악하였을까가 문제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내관의 전내부는 보다 중요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7) 李基白, 앞의 글(1974), 151·167쪽.

28) 李基白, 위의 글, 157쪽.

안전판과도 같은 구실을 하였다고 한다.<sup>29)</sup> 이것은 백제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전내부 역시 좌평 중심의 합의기구와 대조될 수 있으며, 그 장은 전제왕권의 보호막 구실을 하였던 것은 아닐까 한다.

이를 고찰해보기 위해서 전내부의 장을 역임했다고 추측되는 마무에 대해서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마무는 성왕 22년(544)에는 8품 施德이었는데<sup>30)</sup> 성왕 28년에는 6품 나솔로 되어 있었다. 그 사이에 승진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등이 6년만에 2품 상승한 셈이다. 국왕의 「股肱之臣」으로서 왕좌가 되었던 그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관등의 승진이 더딘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그의 신분에서 연유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는 대성8족과 같은 대단한 가문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록 왕실의 측근세력이었다고 하지만 관등 승진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마무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22부사의 장 특히 전내부의 장을 역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왕은 이들을 전내부의 장으로 등용하여 국왕의 전제권력을 귀족세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자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시 16관등의 최고 관등이었던 좌평을 역임하였던 사람들은 행정 조직 체계내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무령왕대 이후 좌평의 명칭 변화를 주목해 볼 만하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무령왕 이전에 보이는 좌평이 대부분 6좌평 중 어느 좌평이었는데 지를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무령왕 이후에는 좌평이란 명칭만 나올 뿐 구체적으로 어느 좌평이었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다. 좌평 관등에 변화가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변화를 22부사의 설치와 관련하여 추구한 견해가 있다.<sup>31)</sup> 이 견해에 따르면 6좌평제는 22부사를 중심으로 한 정치

29) 李基白, 위의 글, 167쪽.

30) 백제는 施德 馬武·分屋·斯那奴次酒 등을 任那에 사신으로 보냈다(《日本書紀》권 19, 欽明天皇 5년 2월).

31) 李鍾旭(위의 글, 47쪽)은 22부사의 설치를 동성왕대 말기의 정치체도의 개혁에서 비롯되었다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22부사의 설치에 무령왕대 말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무령왕 21년 이후가 아닌가 한다. 무령왕 21년에 梁에 보낸 조서의 “更爲強國”이라는 표현이 주목된다. 고구려군을 여러 차례 격파하였던 자신감때문에 단순히 이 표현을 사용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강국이 될 만한 사회체도의 개혁이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개혁은 웅진천도 이후의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기



조직으로 개편되었고, 22부사 체제하에서 6좌평체제는 정치적 의의를 잃고 변화되었다고 한다. 6좌평체제가 정치적 의의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이 견해는 대체로 옳다고 할 수 있다. 무령왕대 이전 좌평의 중요한 임무는 국정을 여섯 분야로 나눈 행정통치였다고 생각된다. 이 행정통치는 국왕의 단독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닌 6좌평들의 합의를 거친 이후에야 가능했을 것이다. 무령왕대 이전의 6좌평에게는 행정통치 권한과 이에 대한 합의 권한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다.<sup>32)</sup>

그러나 좌평이 합의기구로서의 권한까지 22부사에 넘겨주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좌평은 합의기구로서의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국왕을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성왕이 한강유역의 회복을 위한 전투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 원로들이 합의에 의하여 그 전투를 반대했었다. 이 합의에 참여하였던 원로들은 백제사회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 아마 최고 관등이었던 좌평들이 그 핵심을 구성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성왕이 한강유역에서 전투를 결행하고자 했을 때, 원로들의 반대는 성왕대까지 좌평 중심의 합의기구에 의한 국왕에 대한 견제기능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라에서 화백회의의 기능이 하대까지 지속되고 있었음을 상기해 볼 때 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왕대에 좌평을 역임하였던 사람들로서는 좌평 燕謨, 상좌평 沙宅己婁, 중좌평 木笏麻那, 중좌평 麻齒, 하좌평 木尹貴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중좌평 마치의 성씨는 알 수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 대성8족이었다. 귀족세력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좌평은 대성8족이 역임하였고, 이들은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국왕을 견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마무와 같이 대성8족이 아닌 관료들이 전내부의 장으로서 국왕의 보호막 구실을 해주었다는 사

---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었을 것이다. 웅진천도 이후에 사회혼란은 귀족세력의 여러 차례에 걸친 반란에서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개혁의 방향은 귀족세력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개혁의 하나로 22부사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2) 동성왕 이전 22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삼국사기》의 고이왕대에 설치되었다고 전해지는 6좌평이 행정권을 장악하였을 것이다. 신라의 화백회의가 만장일치제로 운영된 것처럼 이들도 행정권을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운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실과 대조된다.

그렇다면 사비천도를 전후한 시기, 즉 성왕대에는 국왕이 행정통치에 긴요한 22부사를 직접 장악하였으며, 대성8족으로 구성된 좌평은 합의기구를 통하여 국왕을 견제하였음을 알 수 있다.

〈金周成〉

## 4. 지배세력의 분열과 왕권의 약화

### 1) 집권체제의 모순

지금까지 사비로 천도한 이후 성왕대의 권력강화를 위한 제도개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관산성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고 3만여 명에 달하는 인명피해를 당하자 성왕이 성공적으로 개편한 제도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성왕이 전사한 이후 백제의 정치가 전개되어 가는 과정을 제도적 변화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관산성에서 패전한 이후 원로들의 패전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 인하여 위덕왕(554~598)은 즉위할 때부터 심각한 곤경상태에 빠져들었다. 원로들의 정치적 발언권은 강해졌던 반면에 국왕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좁아지고 있었다. 「남부여」에서 「백제」로의 국호 복고, 시호제의 실시 중단, 해왕과 법왕의 짧은 재위기간 등은 왕권이 약화된 중요한 반증이라고 하겠다.<sup>1)</sup> 이로 인하여 성왕 이래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하였던 일련의 조치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극도로 무력해진 국왕이 행정권을 가진 22部司를 장악할 수 없었을 것이며, 22부사가 행정조직 체계내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도 변화를 겪었으리라고 본다.

1) 이에 대하여 위덕왕 초기에는 원로들의 입김에 의하여 왕권이 위축되었지만, 위덕왕 14년(567) 이후에는 22부사의 강화, 불교이념을 통한 배타적 왕족의식의 고양, 《백제본기》와 같은 역사편찬으로 왕실의 권위를 정당화하려는 이념의 수립, 특히 중국과의 활발한 대외관계를 통한 왕권의 권위 확보 등의 시책을 통하여 왕권기반의 구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갔으며, 이러한 사실을 무왕대 이후 왕권기반의 구축을 이루게 한 고리로서 파악하고자 한 견해도 있다(梁起錫, 〈百濟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볼 때 22부사 중 일부 부사의 명칭은 주목할 만하다. 외관의 司軍部<sup>2)</sup>・司徒部・司空部・司寇部 등의 명칭은 《周禮》에 나타난 관부의 명칭을 모방한 것이다. 이것을 백제에서 周禮의 관제개혁이 실시되었던 편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sup>3)</sup> 그런데 이 판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시기상으로 약간 어긋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西魏에서 주례적 관제개혁을 실시하여 「六官의 制」가 공포된 것은 위덕왕 3년(556)이었다. 백제에서 22부사가 완전히 정비된 것은 그 이전인 성왕대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백제에서 서위보다 먼저 주례적 관제개혁을 실시한 셈이 된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모순되는 이 점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4)</sup> 성왕대에 정비된 22부사의 명칭 중 《주례》에서 명칭을 따온 외관 4부의 경우 원래 명칭은 이와 달랐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원래의 명칭은 알 수 없지만, 사군부・사도부・사공부・사구부 등의 명칭은 위덕왕대 주례적 관제개혁이 실시된 이후의 것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그 근거로는 다음 세 가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 22부사의 명칭을 전해 주고 있는 사료가 위덕왕 이후의 상황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周書》는 위덕왕 25년(578)의 백제와 북주와의 통교상황을 전하고 있다. 이로 보아 22부사의 명칭은 위덕왕 이후의 것일 수도 있다. 둘째로 사군부・사도부・사공부・사구부는 군사・교육과 의례・재정・사법 등 국가의 주요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구라고 할 수 있어, 성왕의 국가행정통치에 빠질 수 없는 기구들이기 때문이다. 이들 기구들이 없었다면 성왕의 행정통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셋째로 22부사의 22라는 숫자는 22담당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마도 백제에서는 22라는

威德王代 王權의 存在形態와 性格〉, 《百濟研究》21, 1990).

- 2) 《周禮》에는 사군부의 명칭은 보이지 않는다. 사군부와 비슷한 司馬가 보인다. 사마를 사군부라고 표현한 의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사군부의 명칭 역시 《周禮》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 3) 鬼頭清明, 〈日本の律令官制の成立と百濟の官制〉(《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上, 1978), 142쪽.
- 4) 李基東,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震檀學報》69, 1990), 8~14쪽에서는, 백제에서 《주례》에 입각한 정치사상을 도입한 시기를 위덕왕대보다 앞당겨 성왕의 사비천도기로 제시하였다. 이 견해에 의하면 540년대에서 550년대 전반기에 걸치는 어느 시기에 백제는 三禮에 정통한 陸瑀를 초빙하였으며, 그 때까지 존속한 백제사회의 이중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례적인 정치사상을 도입하였으며 그것은 성왕의 관제정비와 중앙집권화 시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숫자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周禮》에서 명칭을 따온 외관 4부는 위덕왕대에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는 주례적 관제개혁의 소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5)</sup>

이로 보아 적어도 위덕왕대의 주례적 관제개혁이 실시되기 전까지 외관 4부는 귀족세력의 대표인 좌평에게 장악되었을 것이다. 그 때까지 좌평은 이들 부사의 장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최소한 외관 10부사, 더 나아가서는 22부사를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 때 국왕은 거의 형식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귀족세력이 22부사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왕의 세력이 형식화되었기 때문에 신라의 집사부와 같은 기능을 담당했던 전내부의 기능이 거의 마비된 상태였을 것이다. 결국 각 부사간의 권한을 결집시켜줄 수 있는 前内部의 기능까지도 국왕의 권력과 함께 동시에 약화되었다고 하겠다.<sup>7)</sup>

그 후 다시 국왕권이 강화되었다고 하는 무왕대에 이르면 이러한 권력구조 상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무왕(600~641)은 阿莫山城 전투에서의 패전을 계기로 차츰 왕권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재위 말기에 이르러서는 아들 의자를 태자로 임명하여 왕위계승에 대한 귀족들의 간섭을 배제시켰다. 그리고 국왕의 권력강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20여 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물을 끌어 사비성 남쪽에 못을 만들고 그 안에 方丈仙山을 만들었으며 大王浦에서 잦은 연회를 베풀었다.<sup>8)</sup> 이를 통하여 무왕 말기에 이르러 위덕왕대의 귀족 중심의 정치구조가 국왕 중심의 정치구조로 변화되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무왕의 권력강화는 중

5) 사군부·사도부·사공부·사구부가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관부들만이 주례적 관제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6) 귀족세력의 대표인 좌평이 왕실사무를 관장하였던 내관 12부까지 장악하였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시호의 일시 중단이나 왕위계승문제까지 깊이 개입하였던 귀족세력이라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사료가 부족한 관계로 22부사를 내관과 외관으로 분리하여 고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22부사를 하나로 묶어 파악하고자 한다.

7) 성왕대 22부사를 장악하였던 전내부는 위덕왕 이후 행정구조의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을까가 궁금하다. 전내부는 국왕의 권력을 기반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구였다. 국왕의 권력이 미약해짐으로써 전내부 역시 그 기능이 차츰 축소되어 내관의 한 부사로서의 임무만을 수행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한다.

8) 金周成, 〈百濟武王의 寺刹建立과 權力強化〉(《韓國古代史研究》6, 1992).

양행정조직 체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內官을 설치한 바 內臣佐平은 宣納事를, 內頭佐平은 庫藏事를, 內法佐平은 禮儀事를, 衛士佐平은 宿衛兵事를, 朝廷佐平은 刑獄事를, 兵官佐平은 在外兵馬事를 각각 담당하였다(《舊唐書》권 199 上, 列傳 149 上, 東夷傳, 百濟).

백제가 공식적으로 당과 외교관계를 맺기 시작한 것은 무왕 22년(621) 이후였다. 따라서 《舊唐書》百濟傳에는 무왕대 이후의 백제사회를 반영하는 내용이 많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9)</sup> 특히 양국간의 이해관계에 긴밀하게 작용했었던 정치제도에 관련된 기사는 더욱 그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위의 사료는 무왕대 이후의 정치제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런데 위의 사료에는 6좌평의 명칭과 그 직능이 서술되어 있을 뿐 22부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점은 위의 사료와 같은 내용의 사료가 실려 있는 《新唐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의하면 무왕 이후 22부사가 폐지되었다고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22부사로 분화된 행정체계를 경험하였던 백제가 이를 폐지하고 다시 6좌평제로 환원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무왕 이후 국왕의 전제권력이 강화되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차라리 국왕의 권력강화에 따라 22부사와 6좌평간의 세력관계가 변화되면서 22부사의 중요성은 격감되고 6좌평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순리적일 것이다.

또 한편으로 이 사료에서 주목되는 점은 6좌평의 명칭과 그 직능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무령왕대 이후 6좌평의 구체적인 명칭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왕대 이후의 정치제도를 반영해 준다고 생각되는 이 사료에서 6좌평의 명칭과 그 직능이 서술되었던 점은 확실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6좌평을 내관이라고 표현했던 점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위 사료의 내관은 외관인 지방통치제도와 대비해서 쓰인 용어이다.<sup>10)</sup> 그렇다면 내관인 6좌평제도는 중앙행정기구였음을 알 수 있다. 6좌평

9) 《舊唐書》는 945년에 5대시대 後晉의 재상 劉昫 등에 의해서 편찬되었다. 10세기에 편찬된 만큼 《舊唐書》百濟傳에 실린 내용은 사비시대 후기의 백제사회 의 제도와 부흥운동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다.

10) 위 사료에 뒤이어서 지방제도인 5방제도가 서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제도가 중앙행정 조직체계내로 편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좌평제에 또 한 차례의 변화가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6좌평의 임무와 22부사의 임무가 서로 대응되는 점이 주목된다. 즉 그 임무상에서 내신좌평은 전내부, 내두좌평은 사구부, 내법좌평은 사도부, 조정좌평은 사구부, 병관·위사좌평은 사군부와 임무상에서 각각 대응될 수 있다. 최소한 이 관부들의 장에는 6좌평이 임명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무왕은 위덕왕대에 22관부를 장악하였던 좌평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좌평을 국왕의 행정관료로 편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리에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삼국사기》백제본기에는 무왕 이후에도 좌평은 여전히 구체적인 직능이 결여된 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하면 무령왕대 이후의 좌평제가 무왕대 이후에도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왕·위덕왕대를 거치면서 권력구조의 변동에 따라 중앙행정 조직체계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무왕대 이후 국왕의 권력강화에 따른 중앙행정 조직체계의 변화 역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삼국사기》백제본기의 좌평 표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비록 좌평이 국왕의 행정관료로서 성격이 짙은 6좌평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좌평으로서 가졌던 중요한 기능인 합의기구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까닭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도 해본다.

그러나 합의기구로서의 좌평의 권한 역시 예전과 같이 않았을 것이다. 의자왕 15년(655) 좌평 成忠이 간언을 하였는데, 그 결과 성충은 옥에 갇혀 죽게 되었다. 이 일이 있었던 2년 후에는 의자왕은 왕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였다. 좌평제에서 지속적으로 지켜져 온 정원제가 철폐되었다고 하겠다. 이는 좌평이 가지고 있었던 합의기구로서의 권한을 완전히 빼앗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생각해 볼 때 무왕대 이후 합의기구로서 좌평의 권한은 예전과는 달리 크게 축소되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무왕은 위덕왕대의 행정조직체계를 그대로

11) 「최소한」이란 표현을 사용한 까닭은 다음과 같다. 6좌평이 22부사 중 국가의 행정통치기구 중 핵심부라고 할 수 있는 전내부·사군부·사도부·사공부·사구부 등만을 장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2부사를 6개의 그룹으로 편제하여 각 좌평이 그 그룹의 장이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유지시키면서 왕권을 강화함에 따라 좌평을 6좌평제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그들을 국왕의 행정관료로 편제시켜 22부사를 통치하도록 하였다. 이 행정조직체계는 의자왕대까지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귀족세력의 분열

위덕왕 이후 혜왕·법왕의 뒤를 이어 약 50여 년 이상 국왕은 정치권력에 서 소외되고 있었다. 한편 좌평은 국가의 중대사를 그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으며, 그 결정사항을 22부사를 통하여 직접 시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확대된 좌평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었던 세력은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더라도 국왕 이외의 세력은 달리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비록 형식적인 존재였던 국왕이라고 하더라도, 대성8족의 끊임없는 견제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혜왕이 70여 세의 나이로 阿佐를 대신하여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사실이나 법왕이 즉위 3년만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것도 피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대성8족 내부에서는 권력다툼이 있었을지라도 국왕과 대립되는 면에서는 그들간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왕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성8족과는 결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대성8족 이외의 새로운 세력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마침내 무왕은 아막산성전투의 혼란을 틈타 권력을 강화하였다. 무왕은 좌평의 관료화를 추진하면서 이를 통하여 22부사를 장악하였으며, 미륵사의 건립을 통하여 귀족세력과의 타협을 모색한 뒤에는 王興寺의 건립을 통하여 권력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무왕의 권력강화가 무왕 개인의 힘만으로 가능하였을까. 아마도 무왕의 권력강화의 이면에는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세력이 바로 신진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다.<sup>12)</sup>

12) 대성8족과 또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에 머무르고 만 사람들도 같은 시기에 정치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다. 따라서 신진귀족이라고 해서 정계에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신진귀족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무왕의 권력강화를 뒷받침해 주었던 신진세력으로는 먼저 왕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왕은 당의 국학에 왕족의 자제를 입학시켜 유교정치사상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었다.<sup>13)</sup> 위덕왕 이후 대부분의 왕족은 대성8족의 귀족세력에게 계속적인 견제를 받아 왔던 까닭에 왕실을 중심으로 강한 결속력을 다졌을 것이다.<sup>14)</sup> 의자왕(641~660)이 재위 17년에 왕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하여 대성8족의 세력기반이었던 좌평을 무력화시켜 버렸다는 것은 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무왕 때 백제왕족으로서 이름이 전해지는 사람으로 福信이 있다. 복신은 당 나라로부터 당 태종의 璽書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무왕대에 15차례의<sup>15)</sup> 입당사가 파견되지만 입당사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복신이 유일한 경우인데 그는 왕의 조카였다. 비록 15차례 중 하나의 경우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하여 추측컨대, 입당사 중 많은 사람이 왕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무왕은 당의 세력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무왕은 당 태종에게 갑옷과 무기를 바치어 당의 고구려정벌을 유도하였던 듯하다.<sup>16)</sup> 이렇게 중요한 대당외교에 비중이 컸다는 것은 무왕의 왕권강화 과정에서 왕족의 세력이 적지 않은 힘이 되었던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을 신진세력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달솔은 중앙에서는 5부의 책임자였으며, 지방에서는 5방의 장관직인 방령을 역임할 수 있다. 제2관등인 달솔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백제사회내에서 차지할 수 있는 위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은 국왕과 결탁하면서 점차로 세력을 성장시켰을 것이다. 이를 階伯과 黑齒常之를 통하여 살펴보자.

---

적절치 않다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서는 정치권력의 핵심부에 새롭게 접근했던 인물들이라는 의미로써 신진귀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 13) 盧重國, 〈武王 및 義慈王代の 政治改革〉(《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209쪽.
- 14) 물론 왕족이라고 해서 모두 친왕세력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의자왕 2년에 저명한 40여 인과 함께 섬으로 귀양보내어진 제왕자와 그의 자매 등은 아무래도 반왕적인 성격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왕대의 정치적인 흐름으로 보아 대부분의 왕족을 친왕세력으로 파악한다 하더라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
- 15) 申滢植, 〈三國의 對外關係〉(《韓國古代史의 新研究》, 一潮閣, 1984), 315쪽.
- 16)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37년·38년 12월·40년 10월.



階伯은 百濟 사람으로, 벼슬이 達率이 되었다(《三國史記》권 47, 列傳 7, 階伯).  
 黑齒常之는 百濟 西部人이었다.(…) 百濟의 達率로서 風達郡將을 겸임하였다  
 (《三國史記》권 44, 列傳 4, 黑齒常之).

계백과 흑치상지는 모두 달솔이었다. 특히 최근에 발견된 <흑치상지묘지명>에 의하면 그 가문의 경우 4대가 모두 달솔까지밖에 승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 사료에 의하면 이들이 모두 대성8족은 아니었던 것 같다.

계백은 이름이升이고 百濟同姓이었다. 관은 달솔이었으며, 의자왕 20년(660)에 싸우다 죽었다(《大東地志》권 5, 夫餘祠院).

위의 사료를 보면 계백은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조선시대에 편찬된 《大東地志》의 기록이기 때문에 미심한 점이 남기는 하지만 전혀 근거없이 기술되었던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계백과 흑치상지는 신진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국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계백이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전투에 임했을 때, 그는 이미 백제의 패전을 예견했었다고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처자가 노비로 전락하는 것이 싫어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5천 결사대에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독려했다.<sup>18)</sup> 이러한 계백의 충성심은 의자왕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다. 평소에 의자왕과 계백 사이에 굳은 유대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흑치상지는 蘇定方에게 항복하였는데, 소정방이 의자왕을 하옥시키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백제부흥운동을 일으켜 200여 성을 회복하였다고 한다.<sup>19)</sup> 의자왕과 함께 포로로 잡힌 사람들 중에는 각각 大佐平과 大首領인 沙宅千福과 國辯成이 있었다.<sup>20)</sup> 그런데 이들은 도망을 하지 않았다. 흑치상지가 의자왕을 하옥시키는 것을 보고 남달리 두려워하여 도망간 까닭은 의자

17) 百濟同姓의 의미는 잘 알 수 없다. 혹 黑齒氏의 유래가 백제왕성인 扶餘氏에서 유래된 것처럼, 계백씨 역시 백제의 왕성에서 비롯되었던 까닭에 백제동성이라고 표기되었던 것은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18) 《三國史記》권 47, 列傳 7, 階伯.

19) 《三國史記》권 44, 列傳 4, 黑齒常之.

20) <唐平百濟碑>(《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16쪽.

왕과 그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연유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즉 항복한 의자왕이 하옥당하는 것을 보고 평소 의자왕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까닭에 그 화가 자기에게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도망하였다고 여겨진다.

그러면 계백과 흑치상지와 같은 신진세력이 국왕과 결탁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가 궁금해진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은솔 이하는 정원이 없었던 반면에 좌평과 달솔만이 정원이 있었던 점이다. 좌평은 5인,<sup>21)</sup> 달솔은 30인의 정원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달솔에서 좌평으로 승진하려면 약 6:1의 치열한 경쟁을 치루어야만 했을 것이다.<sup>22)</sup> 좌평이 정원제로 묶여 있는 한 달솔 중에서 좌평으로 승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적되어 가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 때에 좌평으로 승진하였던 사람들은 대성8족의 출신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sup>23)</sup>

그렇다면 대성8족이 아니었던 까닭으로 좌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던 달솔 관등을 지닌 사람들은 대성8족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덕왕 즉위 이후에는 왕권은 대성8족과 줄곧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권이 결탁할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세력은 백제사회에서 상당한 권력을 지녔으면서도 대성8족의 세력에 눌러 정치권력의 핵심부에<sup>24)</sup> 접근하지 못하였던 달솔 관등을 지닌 대성8족이 아닌 귀족들이었을 것이다.<sup>25)</sup>

21) 佐平의 정원은 5인 혹은 6인이었다고 한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5~6인 정도였을 것이다(武田幸男, 〈六世紀における朝鮮三國の國家體制〉,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學生社, 1980, 60쪽).

22) 이것은 산술적인 계산이지 실제로는 30:1의 경쟁을 치루어야만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佐平은 임기제가 아닌 종신제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좌평 중 한 명이 결원이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23) 金周成, 〈義慈王代 政治勢力의 動向과 百濟滅亡〉(《百濟研究》19, 1988), 271쪽. 李基文, 〈百濟 黑齒常之父子 墓誌銘의 檢討〉(《韓國學報》64, 1991), 167쪽.

24) 여기서 정치권력의 핵심부라고 표현한 것은 좌평 중심의 귀족회의체인 政事巖會議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던 까닭이다.

25) 의자왕의 결탁세력을 이와 달리 파악한 견해가 있다(金壽泰, 〈百濟 義慈王代の 政治活動〉, 《韓國古代史研究》5, 1992). 대성8족이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성8족 가운데서도 왕권강화에 계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었던 부류들과 그렇지 못한 부류들을 구분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계백과 흑치상지의 충성심은 그들이 지닌 유학사상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 <흑치상지묘지명>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 《春秋左氏傳》·《史記》·《漢書》 등의 역사서를 읽었다고 한다. 이것은 흑치상지만이 아니라 그와 동류의 귀족, 즉 계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서를 읽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들의 유학사상의 특성을 추출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른다. 하지만 의자왕을 海東曾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그들이라면,<sup>26)</sup> 그들은 충효사상에 특히 관심이 깊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계백과 흑치상지는 대성8족이 아니면서 달솔 관등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왕과는 친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왔다고 할 수 있다. 국왕의 권력강화를 뒷받침해 주었던 덕분으로 점차 그 세력이 성장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사례는 이들 세력의 성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된다.

하물며 밖으로는 直臣을 버리고, 안으로는 妖婦를 믿었다. 그리하여 형벌이 미치는 바는 오직 忠良이었으며, 寵任이 더해지는 바는 반드시 諂幸이었다 (〈唐平百濟碑〉, 《朝鮮金石總覽》上, 3쪽).

이 비문은 백제가 멸망한 해인 의자왕 20년(660)에 지어진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日本書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27)</sup> 君大夫人 妖女가 무도하여, 국권을 마음대로 하였으며 현량을 주살한 까닭에 멸망의 화를 불러들였다는 것이다. 비록 당에 의해서 기록된 비문이기기는 하지만, 이 사료는 충분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사료에서는 형벌이 미치는 「忠良」의 무리와 충임이 더해가고 있었던 「諂幸」의 무리를 대구로 사용하고 있다. 백제가 멸망할 당시 서로 대비될 수 있는 「충량」의 무리와 「도행」의 무리가 있었다고 하겠다. 당은 백제의 침공을 이웃 나라인 신라와 서로 화목하게 지내지 않았던 의자왕의 군사행동에 그 책임을 돌리려고 하였다.<sup>28)</sup> 이러한 당의 입장에서 볼 때 「충량」의 무리는 의자왕

이러한 입장에서 의자왕대 초기에 활동하였던 允忠·義直·殷相과 좌평 成忠·興首·任子들을 의자왕과 결탁했었던 세력으로 파악하였다.

26) 의자왕을 해동증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라면 의자왕에게 음향탐락과 음주를 그 만두라고 간언하였다는 좌평 성충과 같은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의자왕에게 충성을 바쳤던 계백과 흑치상지와 같은 무리들이었을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27) 《日本書紀》권 26, 齊明天皇 6년.

28) 의자왕 11년에 당 고종이 보낸 글에 의하면 백제가 신라의 침공을 그치지 않

의 군사행동을 견제하려고 했었던 세력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자왕의 행동을 견제하다가 형벌이 미쳤던 세력은 의자왕에게 간언을 했다가 옥에 갇혀 죽음을 당했던 좌평 성충으로 대표되는 대성8족의 무리를 총량의 무리로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는 달리 왕의 총애가 더해 갔었던 「도행」의 무리는 의자왕과 뜻을 같이 했던 세력을 의미할 것이다. 계백과 흑치상지와 같은 신진세력을 「도행」의 무리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신진세력의 세력이 국왕의 권력강화를 배경으로 마침내 대성8족의 세력과 대립할 수 있을 정도까지 성장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려고 한다면 의자왕대에 보이는 심상치 않은 정계 동향은 주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성충·임자·홍수 모두 좌평이었다. 성충은 의자왕의 음향을 간언하였다가 옥에 갇혀 죽었으며,<sup>29)</sup> 임자는 백제의 국사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金庾信과 내통하였다고 한다.<sup>30)</sup> 그리고 대좌평이었던 沙宅智積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奈祇城으로 퇴거하였다.<sup>31)</sup> 홍수 역시 죄를 얻어 古馬旒知縣으로부터 유배되었다.<sup>32)</sup>

좌평 관등에 있던 인물들이 대략 의자왕 15년을 전후하여 크게 정치적으로 소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좌평 임자가 김유신과 내통한 해는 의자왕 15년이며, 성충이 간언한 해는 동 16년이다. 대좌평 사택지적이 퇴거한 갑인년은 의자왕 14년으로 추정되고 있다.<sup>33)</sup> 좌평 홍수가 유배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좌평 홍수가 여러 해 동안 고마며지현에서 귀양생활을 했었다거나,<sup>34)</sup> 나당연합군의 방어책에 대하여 성충의 견해와 비슷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성충의 극간에 연루된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튼 좌평 홍수가 유배된 시기는 의자왕 15년을 전후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들이 의자왕 15년을 전후하여 크게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던 것은 아무래도 의자왕과의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성충이 의자왕에게 간언하다 투옥되었다거나, 임자가 김유신과 내통하였다는 점은 이

는다면 결전을 치를 것이라고 하였다.

29)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6년 3월.

30) 《三國史記》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31) 黃壽永 編, 〈百濟沙宅智積碑〉(《韓國金石遺文》, 一志社, 1976), 53쪽.

32) 《三國遺事》권 1, 紀異 1, 太宗 春秋公.

33) 洪思俊, 〈百濟 沙宅智積碑에 대하여〉(《歷史學報》6, 1954), 256쪽.

34)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0년 6월.

를 잘 반영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좌평 사택지적이 정치적인 관계에 연루되어 퇴거하였다고 추정되는 것은 이를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다.<sup>35)</sup> 뿐만 아니라 홍수가 성충의 간언에 연루되어 귀양보내졌다는 앞의 추측이 옳다면 역시 의자왕과의 정치적 대립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6)</sup> 의자왕과 대립하였다는 말은 의자왕과 결탁하였던 계백과 흑치상지로 대표되는 신진세력과 대립하였다는 말로 해석해도 무관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자왕 15년을 전후로 하여 대성8족을 중심으로 한 좌평층에 심각한 정치적 동요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유명한 의자왕 2년(642)의 정치변동은 이의 해명에 큰 도움이 된다. 이 때에 의자왕 아우의 아들인 翹岐 및 그의 자매 4인, 그리고 내좌평 岐味 등 고명한 40여 인이 섬으로 귀양 보내어졌다. 이 때 귀양간 고명한 40여 인의 신원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40여 명 중에는 왕족 및 내좌평 기미와 같은 고위계층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이들이 백제의 유력한 귀족출신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자왕의 즉위 초기에 취했던 왕권확립을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이 사건을 파악해 볼 때 왕족을 제외한 고명한 40여 인은 아마도 대성8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 이후 대성8족은 의자왕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된다.<sup>37)</sup> 의자왕 9년에 좌평 正福이 싸움 한 번 번번히 하지 않은 채 김유신에게 내항하였다는 점은<sup>38)</sup> 이를 잘 반영해 준다.

의자왕 15년에 이르러 마침내 대성8족의 세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되었던 사건이 있었다.

(義慈)王은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 30여 성을 쳐부수었다. 신라왕 金春秋가 사신을 당에 보내어 表를 올려 백제와 고구려·말갈이 우리의 북계 30여 성을 점령하였다고 하였다(《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5년 8월).<sup>39)</sup>

35) 盧重國, 〈泗泚時代 百濟 支配體制의 變遷〉(《韓沽昐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72쪽.

36) 金壽泰, 앞의 글, 66쪽에서는 좌평 성충과 홍수·임자 역시 의자왕의 권력강화를 도왔던 세력으로 파악하였다.

37) 물론 대성8족 내부에서도 각 성씨끼리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왕권과 대성8족의 대립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만큼 그 내부의 대립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왕권에 대항하는 측면에서의 대성8족은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38) 《三國史記》권 42, 列傳 2, 金庾信 中.

義慈王 15년에 백제는 고구려·말갈과 함께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쳐부수었다. 신라의 북계 30여 성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라의 북계라는 명칭으로 보아 대체적으로 지금의 한강유역 아니면 강원도지역일 것이다. 신라는 북계 30여 성을 빼앗기자 즉시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가 이같이 기민한 반응을 보였던 점으로 보아 북계 30여 성의 위치는 강원도지역이라기 보다는 한강유역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신라의 한강유역 통치 중심지인 唐項城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상의 요충지였을 것이다. 의자왕이 신라 북계 30여 성을 쳐부수었다는 것은 왕권확립에 대단히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한다. 한강유역을 재탈환하기 위한 관산성전투에서 패한 이후 왕권은 대성8족으로부터 심한 견제를 받아왔다. 이러한 까닭에 왕권을 확립해 가던 무왕과 의자왕은 한강유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무왕과 의자왕은 각각 한 차례씩 한강유역 정벌을 시도하였다.<sup>40)</sup> 무왕과 의자왕이 한강유역을 되찾으려고 했으나 신라가 재빨리 당에 구원을 요청함으로써 두 차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왕실측의 한강유역에 대한 집요한 집념을 읽어 볼 수 있다.<sup>41)</sup>

그것은 다름아닌 신라의 당과의 교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신라를 고립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관산성전투에서 패한 이후 대성8족으로부터 계속적인 견제를 받아왔던 왕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자왕은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차지함으로써 대성8족이 왕권을 견제하려는 명분을 제거하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로 말미암아 좌평의 정치적 지위도 크게 변화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다음의 기록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다.

39) 이 사료는 《三國史記》百濟本紀의 내용이다. 그런데 같은 책 新羅本紀·高句麗本紀와 《資治通鑑》권 199, 唐紀 15, 高宗 上에 의하면 같은 해 정월로 되어 있다. 아마 정월이 맞는 듯 싶다.

40)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28년 7월 및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3년 11월.

41) 무왕 말부터 의자왕대에 걸쳐 백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계속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의자왕 2년에는 한때 미후성 등 40여 성을 공략한 적도 있었다(《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2년 7월). 그러나 무왕과 의자왕의 최종 목표는 신라의 서쪽 변경이 아니었고 어디까지나 한강유역의 회복이 목표였다고 하겠다.

7월 9일 庚信 등이 진군하여 黃山벌에 이르렀다. 백제장군 階伯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먼저 험한 곳을 차지하여 진영을 셋이나 베풀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었다. …3군이 이를 보고 고함을 지르며 진격하니, 백제의 군사가 대패하여, 계백은 전사하고 좌평 忠常과 常永 등 20여 인은 사로잡혔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7년).

위의 내용은 의자왕 20년 황산벌전투의 상황이다. 달솔 계백이 그 전투의 총지휘자로 되어 있다. 좌평 충상과 상영<sup>42)</sup>이 달솔 계백의 참모나 그의 단위 부대의 장군으로 참전하였다고 생각된다. 좌평이 달솔의 지휘를 받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좌평을 역임하였던 대성8족의 정치적 세력이 달솔을 역임하였던 신진세력의 그것에 비하여 점차 열세한 위치로 전락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의자왕 말기에 이르러 대성8족과 신진세력은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의자왕 20년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당해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처럼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좌평층과 달솔층이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대성8족과 신진세력과의 정치적 대립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이것은 백제 국내의 사회불안을 고조시켰으며, 대외항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백제는 나당연합군의 침입을 맞아 계백의 황산벌전투를 제외하고는 변변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다.

### 3) 대외관계의 변화

중국은 오랫동안의 남북조 분열시대를 지나 마침내 수에 의하여 통일되었다(589). 통일제국인 수의 등장은 삼국간의 세력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서는 백제를 중심으로 하여 7세기 대외관계의 변화를 백제 국내의 정치세력의 동향과 연결시켜 추구해 보고자 한다.

42) 여기에 보이는 좌평 상영은 의자왕 20년 나당연합군의 침입에 대비한 전략회의에 참여한 달솔 상영과 같은 인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대성8족이 아닌 인물로 생각되는 달솔 상영이 좌평으로 승진한 셈이 된다. 의자왕 17년 이후에는 좌평 관등이 대성8족의 전유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좌평의 정치적 지위가 낮아졌다는 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라고 하겠다.

백제는 우선 수를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백제는 수가 요동을 침입할 때 수를 돕는다고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양단책을 쓰고 있었다.<sup>43)</sup> 또 한편 백제는 수양제가 고구려의 동정을 살피도록 하였으나 몰래 고구려와 通和하여 간사하게도 중국을 살피고 있었다는 것이다.<sup>44)</sup> 이러한 사실들은 백제가 수와 동시에 고구려와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생각된다. 백제가 수와 고구려에 대하여 등거리외교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백제는 수와 고구려와의 분쟁을 틈 타 신라와의 대적에 모든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백제는 무왕 3년(602) 解讐가 참패한 이후 국내정세의 회복을 꾀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무왕 3년 이후 무왕 12년까지 백제는 신라를 침입하지 않았다. 도리어 신라가 무왕 6년에 백제의 동쪽 국경선을 침범하였다. 10여 년 동안 백제는 국내외 정세를 관망하면서 내정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겠다. 이 때 백제에서는 6좌평의 관료화 추진, 미륵사의 건립 등을 통하여 대성8족의 세력이 쇠퇴하자 국왕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무왕 19년(618) 중국에서는 수를 이어서 당이 들어서게 되었다. 백제는 또 다시 당을 이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사신을 당에 보내어 明光鑑를 전하고 인하여 고구려가 도로를 막고 上國에 來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다(《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5, 무왕 27년).

무왕은 고구려가 길을 막고 있어 조공이 어렵다는 명분으로 간접적으로 당과 고구려와의 전쟁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백제가 당에게 고구려를 평정해 줄 것을 간접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구려와의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백제의 무왕이 수의 침략을 성공적으로 물리쳤던 고구려를 멀리 할 이유를 찾아보기도 힘들다. 고구려의 영류왕 역시 강력한 당의 세력에 맞서야 했으며, 왕권을 강화하여 국내 정치세력을 안정시켜야 할 입장이었으므로 비록 양단책이나마 화해를 표방하고 있었던 백제를 멀리 해야 할 이유도 없었다.

43) 《三國史記》 권 27, 百濟本紀 5, 무왕 13년.

44) 《隋書》 권 81, 列傳 46, 東夷傳, 百濟.



640년대 이후 백제와 고구려는 뚜렷하게 가까워지고 있었다. 의자왕 3년(643) 11월에 고구려와 백제가 공동으로 신라의 당항성을 점령하려고 했던 사실이나, 의자왕 15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고 하겠다. 무왕 28년(627) 7월 백제가 단독으로 신라의 당항성을 공격하려고 하였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볼 때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는 의자왕 3년 이후 그 전에 비해서 무척 친밀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기록을 살펴보면 그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에 신라에서 올린 표에 의하면 왕과 고려가 매년 군대에 일으켜 朝旨를 어기고 함께 신라를 침범하였다고 하였다. 내가 문득 왕과 고려가 協契를 맺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였는데, 지금 왕이 올린 표를 보고 또 康信에게 물어 왕과 고려가 한 무리가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으니, 이와 같음은 진실로 내가 바라는 바에 잘 부응하는 바이다. 康信이 또한 말하기를 왕의 뜻이 군대에 파견하여 관군과 함께 흉적을 정벌하고자 한다고 하였다(〈唐太宗與百濟義慈王書〉, 李基白 編《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301쪽).

이 기록은 의자왕 4년 백제는 당에 강신을 파견하였는데, 다음해 2월경에 당 태종이 그를 통해 의자왕에게 고구려정벌군을 동원하도록 보낸 교서이다.<sup>45)</sup> 이 기록에 의하면 비록 당 태종의 물음에 대하여 강신은 백제와 고구려가 한 무리가 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의자왕 3년 이후 양국의 동정에 비추어 볼 때 양국 사이에 모종의 協契가 있었던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하겠다.

백제와 고구려의 밀착과 관련하여 의자왕 2년 양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백제에서는 정월에 왕의 모후 사망 이후 翹岐 및 그의 어머니와 자매 등 여자 4인과 내좌평 기미 등 고명한 사람 40여 명이 섬으로 귀양갔던 사건이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같은 해 10월에 蓋蘇文이 쿠데타를 일으켜 영류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즉위시켰다. 같은 해에 일어났던 두 사건이 두 나라를 가깝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럴 듯한 추정이라

45) 朱甫墩, 〈『文館詞林』에 보이는 韓國古代史 관련 外交文書〉(《慶北史學》 15, 1992), 166~167쪽에서 이 문서의 작성 목적을 “당도 고구려 원정을 앞둔 시점에서 백제와 신라와의 화해를 도모하는 의미에서 회유책의 일환으로 형식적인 청병을 하였을 뿐 실제로는 신라가 원병을 파견하는 동안 그에 대한 공격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깃들여 있는 것 같다”고 하였다.

고 하겠다.<sup>46)</sup>

백제가 고구려와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당과의 등거리외교를 유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백제는 의자왕 11년과 12년에 각각 한 차례씩 입당사를 파견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자왕 5년 이후에는 무왕대 이래 매년 보냈던 입당사를 파견하지 않았다. 의자왕 11년의 입당사 파견은 당 태종의 죽음으로 인한 당의 변화된 사정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그 때 파견된 입당사가 가져온 교서에 의하면 백제왕이 만약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당은 고구려를 거란과 諸蕃으로 하여금 혼란시킨 다음 신라가 요청한 바에 따라 백제와 결단을 하겠노라고 위협하였다.<sup>47)</sup> 의자왕은 이듬해 당의 눈치를 살피기 위한 入唐使를 한번 더 파견한 후 당과의 관계를 청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이나 해주듯이 당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자왕 13년에는 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다.<sup>48)</sup> 입당사가 파견되지 않았던 때로부터 백제와 당과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고 하겠다.

의자왕 5년 이후 백제는 당 대신 고구려를 택했다고 하겠다. 이 사실은 백제 멸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던 만큼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당 태종이 의심하였던, 고구려와 백제 사이의 協契가 주목된다. 양국 사이에 맺어진 협계의 구체적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시대에 행해졌던 양국의 공동작전을 생각해 보면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협계에 따라 공동작전이 행해졌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의자왕 3년과 15년 양국은 두 차례에 걸쳐 공동작전을 펼쳤다. 의자왕 3년에는 신라에서 당으로 가는 통로였던 당항성을 공격하려 하였고, 동 15년에는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점령하였다. 북계 30여 성의 구체적인 지명 고증은 어렵겠지만, 당항성을 중심으로 한 한강유역이었음은 틀림없을 것이다. 두 차례 모두 공격대상이 신라였으며, 당항성 부근의 한강유역이었음은 주목된다.<sup>49)</sup> 당항성이 신라의 당과

46) 盧重國,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 變化에 대한 一考察〉(《東方學志》 28, 1981), 95쪽.

金壽泰, 〈百濟의 滅亡과 唐〉(《百濟研究》 22, 1991), 160쪽.

47) 《三國史記》 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1년.

48) 왜국과의 통교는 일찍부터 있어 왔다. 의자왕 13년의 통교는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우의를 다짐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49) 물론 두 나라에게 공통적으로 가능한 공격지역으로는 한강유역 밖에 달리 찾을

의 교통로였던 만큼 신라를 고립시키는 데 양국의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당항성 부근의 한강유역은 무왕 28년(627) 백제가 공격하려던 곳이었을 것이다. 무왕은 잃었던 땅을 회복하려고 했었다. 백제로서는 한강유역이 중국과의 교통로일 뿐만이 아니라 백제의 발상지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다. 한강유역은 고구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었다. 보장왕 원년(642) 고구려를 방문한 김춘추에게 연개소문이 반환을 요구한 땅이 죽령 서북지역이었다. 죽령의 서북지역이라면 바로 남한강유역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한강유역은 백제나 고구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겠다. 양국이 이 지역을 공동으로 회복하려고 했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협계의 중요한 부분의 하나는 한강유역을 공동으로 회복하는 것이었다. 즉 양국이 맺은 협계의 목적은 당항성 부근의 한강유역을 점령하여 신라를 당으로부터 고립시키는 데에 있었다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정책은 백제와 고구려 양국에서 공동으로 유리한 정책이었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에게 더욱 소망스러운 정책이었다. 양국 사이에 실제로 행해진 군사작전지역이 당항성 부근의 한강유역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 사비시대 국왕의 권력강화에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한강유역을 회복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백제가 의자왕대에 들어서서 점차 당과 결별하고 고구려와 친밀해져 가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자왕대 초반 백제나 고구려의 입장에서 한강유역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한강유역은 당의 입장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고 하겠다. 당은 북쪽 돌궐과의 투쟁을 마무리짓기까지에는 삼국이 분

---

수 없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방문한 김춘추에게 죽령 서북지역의 땅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642)는 사실이 주목된다. 당시 신라가 죽령 서북의 땅을 반환해 준다는 것은 도저히 실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일을 신라에게 요구했었다는 것은 고구려가 신라와 동맹을 맺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의 입장로서는 백제가 신라에 비하여 보다 소망스러운 동맹대상으로 믿고 싶었던 것 같다. 大耶城을 함락하여 승세에 있었던 백제가 고구려에게 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대상이었을지도 모른다. 즉 고구려는 백제에게 한강유역이라는 미끼를 던져 줌으로써 백제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다.

열된 상태에서 현상유지하는 정도를 원했었던 것이다.<sup>50)</sup> 따라서 신라의 당과의 거의 유일한 통로인 당항성을 고구려와 백제에게 점령당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당의 이러한 의도를 알아차린 고구려와 백제가 당과의 외교관계를 무시한 채 한강유역에 대한 공격을 시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당시 고구려의 경우 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하여 도교를 받아들여려고 하였으며, 백제는 당과 고구려 가운데 어느 쪽이 유리할까 저울질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백제와 고구려 양국은 당의 의도를 어느 정도 높여주어야 했었다.

또 한편 백제의 국내사정도 한강유역의 회복을 달가워하지 않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는 듯하다. 무왕대 이후 의자왕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백제는 신라를 침공하였으나, 대부분 신라의 서쪽 변경을 공략하였다.<sup>51)</sup> 비록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무왕과 의자왕이 각각 한 번씩 한강유역에 대한 회복을 기도했었던 것은 무왕의 입장에서 그만큼 의미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강유역의 회복은 국왕이 권력을 강화하는 데에 중요했었다고 하겠다. 한강유역의 회복은 대성 8족에 대한 국왕의 입장을 강화시켜 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은 위덕왕 이후 거의 100여 년동안 형성되었던 대성8족 사이의 세력균형이 깨어질 위험성이 내포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성8족은 한강유역의 회복에 대하여 예민한 거부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생각된다.<sup>52)</sup>

그러나 권력강화를 의도했었던 목적에서 한강유역 회복을 피하였던 국왕

50) 《三國史記》권 27, 百濟本紀 5, 무왕 28년 8월. 이 기사 가운데 당이 백제에 보낸 교서가 전하는데 삼국이 오랜 숙원을 풀고 화목하게 지낼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다. 신라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 준다는 것도 아닌 지극히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어투이다. 당이 이러한 교서를 작성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때 당은 국내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貞觀의 治」를 진행시켜 가고 있었으며, 북쪽 돌궐과의 투쟁에 더 신경을 쓰던 무렵이었다. 따라서 삼국간의 외교관계는 적당한 선에서 현상유지 정도로 이끌어 가려고 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서를 보낸 것으로 이해된다.

51) 물론 백제가 신라 서쪽 변경을 공격한 것은 신라의 한강유역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도 중요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는 백제의 내부적인 요인과 당과의 대외관계가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52) 성왕대 한강유역의 회복에 적극적이었다고 생각되는 세력으로 진씨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한강유역을 잃어버린 지 100여 년 이상이 흘러버린 의자왕대에 이르러서는 진씨도 당시의 세력균형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자왕 당시에는 대성8족 전체가 한강유역의 회복을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굳어져 가고 있었다고 느껴진다.

은 권력강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한강유역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는 없었다. 등거리외교를 지향하던 백제가 당과 고구려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으면서 의자왕이 결국 고구려를 택했던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당과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 백제는 한강유역에 대해 더 이상 당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어졌다. 의자왕 15년 백제는 마침내 고구려와 함께 신라의 북계 30여 성을 침공하였다. 이제 백제와 당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된 반면에 신라의 당에 대한 군사요청은 끊임없이 이어졌다.<sup>53)</sup> 성충이 당과 신라의 연합군대가 쳐들어 올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sup>54)</sup> 이러한 대외관계의 변화에서 가능했을 것이다.

〈金周成〉

53) 태종무열왕이 당에 군사를 요청하고 군사를 파병한다는 연락이 없자 매우 근심하고 있었는데 長春과 罷郎이 나타나 곧 당이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한다(《三國史記》권 5, 新羅本紀 5, 태종무열왕 6년 10월). 이 설화 형식의 이야기는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당의 군대를 얼마나 열망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당태종과 신라 김춘추 사이에 맺어진 백제 공략을 약속한(648) 이후 신라가 당에 파견한 사신의 주요 임무는 당이 군대를 파견하도록 종용하는 것이었다고 여겨진다.

54) 《三國史記》권 28, 百濟本紀 6, 의자왕 16년.